Weekly
공감
2010.08.25 No.74
gonggam.korea.kr
미소와 햇살로 서민에게 희망을!
서·민·금·융 p21~46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의미와 과제 p10~11
4대강 최초 가동보, 금강 금남보 현장을 가다 p14~19
기상청 총괄예보관실 24시간 구슬땀 p8~9

4대강살리기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제를 살렸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땅, 우리 강을 보살피겠습니다.

서민금융은 희망의 빛

최근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햇살론'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기 시작했다. 햇살론의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고, 보증 재원은 서민금융기관과 정부가 절반씩 공동 출연해 마련된다. 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80~85퍼센트 수준이고, 자금 용도는 생계자금,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한정돼 있다.

햇살론의 도입 배경 가운데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 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계 부채 중 소득 수준 상위 20퍼센트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4퍼센트(2000년)에서 40퍼센트(2006년)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하위 계층의 부채 비중은 줄어들었다. 또한 가계부채 용도를 조사해본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 구입에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이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증식해왔음을 시사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이러한 대출 집중 현상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시장 진출과 서민금융기관의 부진에서 기인한다. 시중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우량고객에 대한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 수요가 둔화되고 은행 경영이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은행의 우량고객에 대한 가계대출이 확대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신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위기 이후 파산, 인가취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격화되면서 가계대출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서민금융기관의 강점 활용해 금융소외계층에 서비스 역할 톡톡

서민금융기관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지역 연고, 반복 거래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축적함으로써 서민금융 분야에서 여전히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서민금융기관의 강점인 고객에의 높은 접근성, 공동체적 연대감, 소비자금융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햇살론은 바로 이러한 서민금융기관의 강점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신용의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공성이 강조될 경우 서민금융시장의 자생적 발전이 어려우므로 시장 친화적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햇살론의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은 서민금융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지배구조 유지, 고유 대출상품 확보, 위험관리체계의 선진화, 서민금융기관 특성에 적합한 감독 등을 강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G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Weekly
2010.08.25
No.74(통권 175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미소금융은 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다. 중고 오토바이 수리 매장을 운영하는 정진덕 씨도 미소금융 덕분에 활짝 웃었다.
사진 · 조영철 기자

햇살론
미소 금융
희망 홀씨

22

일러스트 · 이우정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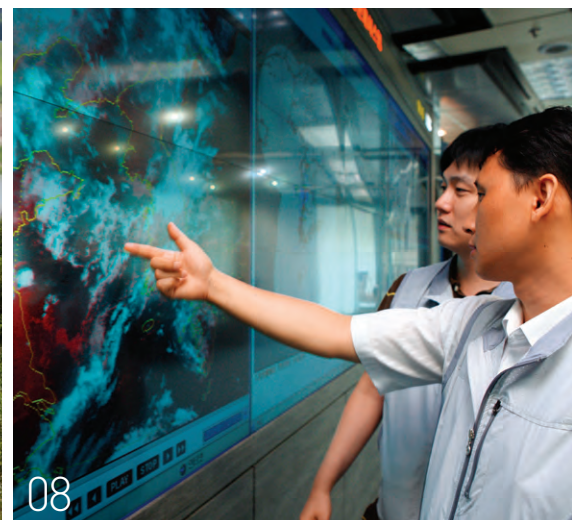
08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8.2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서민 위해 '희망 삼총사'가 떴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호응을 얻은 '햇살론', 창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은행권 서민대출인 '희망홀씨'. 담보도, 신용도 부족한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 희망 삼총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금융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 복지입니다. 서민금융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56

중점기획 4대강 최초 가동보, 금남보 현장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3호(8월 18일자) 기획특집 '소통과 화합으로 하모니 코리아'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과 화합이 대세!"

"홍명보 올림픽축구 대표팀 감독이 고액 기부자 모임에 11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구 실력이나 기부도 국가대표급이네요! 우리 사회 고위층들도 홍 감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_남기백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상생의 길을 모색해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통합위원회가 맡은 역할은 막중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안한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단지 제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_권혜진

"존경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비리에 자주 연루돼 국민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돼온 지 오래입니다. 과거 선비들은 명예를 중히 여기고 부를 챙기지 않았는데 요즘 고위 공직자들은 명예와 금전 둘 다 챙기려다 평생 쌓아온 업적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말더군요. 이제 제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뇌물수수 같은 부정을 저질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주세요." _우향화

73호 중점기획 '〈조선왕실의궤〉 88년 만에 돌아온다'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한참 늦었지만 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책이 돌아온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약탈해간 〈조선왕실의궤〉를 무려 88년 만에 돌려받게 됐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한 약속이니 꼭 지켜지리라 믿어봅니다. 우리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기대합니다." _woohh0419

73호 '이 사람-퀴즈 영웅 등극한 중졸 화물차 운전기사 임성모 씨'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배움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상식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께선 운이 좋았다고 겸손해했지만 기사 내용만으로도 노력의 흔적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진실된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두 딸이 아빠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_지아나

보수-진보 '공동분모' 모색

"조선왕실의궤 88년 만에 돌아온다"

알립니다

환경친화형 송전철탑 디자인 구해요

송전철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형 송전철탑 관련 디자인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 | 구조물 형상, 색상, 조명 등 3개 부문 및 도심, 야외, 산간 등 3개 지역
참가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부문별, 지역별 동일인 중복신청 가능
접수 기간 |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응모 방법 | 디자인 도면 및 작품 설명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 앞
수상작 발표 | 9월 30일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 내용 | 최우수상(1점) 국무총리상 및 5백만원, 우수상(2점) 지식경제부 장관상 및 3백만원 등 수여 예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 ☎ 02-3456-4725 kepco.co.kr

아름다운 방음시설 아이디어 찾아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현대적 디자인의 방음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방음시설 설치물과 방음시설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 | 방음시설 설치물 및 방음시설 디자인 부문
참가 대상 | 설치 부문은 방음시설 설치기관 또는 설치업체 대상, 디자인 부문은 대한민국 전 국민 대상
접수 기간 | 9월 14일까지
응모 방법 | 부문별로 공모전 요강에 맞춰 작성한 서류를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접수처 |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 앞(9월 14일 도착분에 한함)
수상자 발표 | 10월 11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 내용 | 각 부문별 대상(1팀) 환경부 장관상 및 2백만원, 우수상(2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및 1백만원 등 수여 예정

한국환경공단 ☎ 032-590-3541 contest-soundproof.co.kr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아름답고 좋은 풍속. "우리 민족 고유의 OOOO은 시대 변화에 맞춰 잘 간직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지난 6월 29일 4대강 최초로 이 강의 금남보가 완공됐죠.
4. 산이나 골짜기에서 소리가 나아가다가 다른 산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현상. 메아리.
7. 마르지 않은 생나무.
8. 저신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시행 중인 대출 상품. 미소금융, 햇살론 등과 함께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세 로

1.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상품.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무등록 사업자 대출 등이 있죠.
2. 소백산맥 줄기 가운데 솟아 있는 산. 국립공원이죠. 문장대, 법주사….
5. 이순신 장군이 조류를 이용해 왜군을 무찌른 곳.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을 순우리말로 이렇게 부르죠.
6. 부러워하여 바라는 것. "뛰어난 체력과 기술을 지닌 그는 다른 운동 선수들에게 OO의 대상이다."
7. 그날그날의 기상 상태. "올여름 OO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Weekly 공감〉 72호(8월 1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영산강 3 변이 5 구기자 7 안전 8 청사초롱
세로 1 영치기 2 강변 4 이안류 5 구미호 6 자원봉사

〈Weekly 공감〉 72호 '공감 퍼즐' 당첨자
강석우·인천 남동구 도림동
곽은미·광주 광산구 비아동
권기훈·경기 군포시 수리동
송윤경·서울 용산구 후암동
최종면·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선진 질서의식이 한국 야구 키운다”

이종범 광주지방경찰청 기초·교통질서 홍보대사

지난 5월 30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0 프로야구 SK와 롯데의 경기에서 통산 1억 번째 관객이 입장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배트를 힘차게 휘두르고, 공을 더 멀리 던지고, 한 번 더 구를 수 있는 힘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솟아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팬이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경기 관람은 뒷전인 채 만취 상태로 단상에 올라 추태를 부리거나 어린아이 옆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대고, 야구장 곳곳에 쓰레기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버리는 모습은 내 가족과 아이에게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씁쓸한 장면들입니다.

질서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맺은 소중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경기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한 마음과 ‘별것 아니야’라며 사소하게 치부하는 순간 소중한 질서의 가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흔히 야구를 팀워크의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단 선수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팬들의 팀워크 역시 선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경기가 열릴 때면 세계인은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수들의 끈질긴 투혼 때문이고 또 한 번은 응집된 응원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한 플래카드와 마술 같은 태극기 물결 응원 속에서 선수들은 불굴의 투지로 이에 보답합니다.

이제 한국 야구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권에 우뚝 서게 됐고 올림픽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등을 통해 그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습니다.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관객들의 ‘선진 질서의식’을 무기로 한국 프로야구가 거침없는 질주를 계속하기를 기원합니다.

글 · 이종범(프로야구 선수)

일러스트 · 김영민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박옥희 부산 북구 화명동

1.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룬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심화된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2. ‘보수-진보 공통분모 모색’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제 이념논쟁으로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과 화합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3. 독서의 계절에 꼭 읽어야 할 도서를 안내해주세요.

김영식 경기 구리시 인창동

1. ‘빛의 문 위용 드러내다’라는 제목의 광화문 화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훼손됐다가 고종 중건 때의 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을 보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복원된 광화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광화문 나들이를 해볼까 합니다.

2.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기사를 읽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애쓰는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초반이라 ‘소통과 화합 마당’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따뜻하고 정겨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3.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25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미소와 햇살로 서민에게 희망을!’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행복한 세상 만드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작지만 소중한 생활 속 국민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제3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

■ **공모내용**

세금, 주택,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재정지원방안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 **집중공모기간**

2010년 8월 1일 ~ 10월 31일 까지

※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는 연중 상시 공모

■ **접수방법** _ 인터넷 접수 www.oklife.go.kr

■ **접수문의** _ 02) 2100-3860, 1758

■ **시상내역**

· 대통령상 7명(부상금 각 200만원)
· 국무총리상 7명(부상금 각 1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상 80명(부상금 각 10만원)

※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 선정기준**

· 2010년 10월 31일 까지 접수된 제안 심사 (이후 접수 제안은 2011년 심사)
· 동일 제안은 우선접수된 순으로 수상자 결정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상시공모, 집중공모 및 각 기관별 생활공감 공모작 대상 심사
·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12월중 개최

| 제2회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대통령상 수상작 |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야간반 운영 _ 주부 박영주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 _ 주부 손연화
일용 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제도 개선 _ 근로자 박경수 / **경찰서 방문없이 교통위반범칙금 납부** _ 직장인 마태성
다자녀 가구 사용량 제한 없이 전기요금 할인 _ 주부 조정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에서 본청과 각 지방기상청의 예보관들이 화상을 통해 기상 회의를 하고 있다.

기상청 총괄예보관실

‘족집게’ 예보 위해 24시간 起床

〈기상〉

정부기관 중에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본전도 못 건지는 평가를 받는 곳이 몇 있다. 기상청이 대표적이다. 특히 다양하고도 불특정한 기상 상황을 신속히 예보화해 국민에게 알리는 예보관들의 숨은 노고는 잘 부각되지 않는다. 격려는커녕 예보가 잘 맞지 않을 때마다 맹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24시간 기상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8월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동작구 기상청 건물 2층 국가기상센터. 기상센터 전광판에 띄워진 위성자료 검색시스템 등에선 각 지역의 기상 상황이 빠르게 업데이트됐다.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예보국 직원들의 눈동자는 더욱 매섭게 돌아갔다. 기상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예보관들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광주 예보관 나오세요.”

통보 업무를 맡고 있는 신동현 예보관이 전국 예보관 화상회의의 시작을 알린다. 전국 예보관 회의에는 서울 본청 예보관들과 10개 지방기상청 예보관이 참석한다. 매일 오전 5시와 11시, 오후 5시와 11시 기상예보가 발표되기 전에 열린다. 서울 본청 및 지방기상청 예보관들은 화상을 통해 기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해 예보를 확정한다. 그래서 국가기상센터는 예보의 총사령부다.

“광주 예보관입니다. 18시 전후로는 구름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20밀리미터로 잡겠습니다. 일단 내일 소나기 여부는 아침에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5·11시, 오후 5·11시 전국 예보관 화상회의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이 의견을 제시하자 신 예보관은 “레이더망으로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 소나기 가능성을 더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 신 예보관은 대전,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예보관에게도 소나기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거듭 요청했다. 기상정보의 대외 통보 업무를 맡고 있는 육명렬 예보정책과장은 예보관들의 회의 상황을 빠짐없이 수첩에 기록하며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다.

지방기상청 예보관들의 의견 제시가 끝난 뒤 김남욱 총괄 예보관의 날카로운 총평이 이어진다. 여기서 각 지방의 예상 예보를 보완하고 수정한다. 김 예보관은 예보 총괄 업무를 맡는 기상청 총괄예보관 4명 중 한 명이다.

"서울은 21시부터 24시까지 소나기를 반영했기 때문에 인천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강수량을 너무 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안 오지만 따뜻한 지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밤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다들 너무 좋은 쪽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 예보관의 따끔한 지적은 5분여 간 '가감 없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몇 분간 예보국과 각 지방기상청 예보관들을 비춘 화상 너머로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곤 한다.

회의를 마친 김 예보관은 자리에 앉아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잠시 쉴 만도 한데 스스로 여유를 주지 않았다. 김 예보관의 눈동자는 여러 대의 컴퓨터 중 자연스럽게 메신저가 켜져 있는 컴퓨터로 향했다. 메신저엔 깨알 같은 글씨로 각 지역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보고되고 있었다.

수치예보 모델 성능·관측자료·예보관 역량이 예보 결정

보통 예보 역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은 수치예보 모델 성능, 관측자료, 예보관의 역량이라고 말한다. 비중으로 따지면 순서대로 40퍼센트, 32퍼센트, 28퍼센트다.

하지만 이는 이론에 불과하다. 3세대 슈퍼컴퓨터가 정교하게 수치모델 계산을 수행해 얻어진 데이터와 각종 관측자료가 중요하지만 결국 이를 바탕으로 최종 예보를 내리는 것은 예보관들의 몫이다. 그들의 경험과 판단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그만큼 부담도 크다. 과학에 불확실성이라는 짐을 안겨주는 자연과 정확한 예보 사이에서 늘 고민이 많다고 한다. 김 예보관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어디까지가 과학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보할 때마다 수학처럼 1+1=2라는 답이 항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민의 연속이지만 예보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선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 어떠한 과학적 데이터라도 예보관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돌도끼를 가진 사람과 총을 가진 사람이 사냥을 한다고 칩시다. 누가 잘할까요? 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보도 마찬가지죠. 흔히 예보관들 사이에선 '지경노'라고 합니다. 지식, 경험, 노하우를 말하죠. 이것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예보관으로서 직관이 흔들린다고 봐요. 날씨라는 건 똑같은 패턴이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식뿐 아니라 경험이나 노하우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쌓기 비법이 있느냐고 묻자 새벽에 호우 일기예보를 내고 집으로 퇴근할 때 많은 경험을 쌓는다고 말한다.

"새벽에 일기예보를 내놓고는 오전 8시에 퇴근해 자야 하는데, 집에서도 컴퓨터로 기상청 레이더 정보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다 지쳐서 쓰러지죠. 사실상 24시간 근무인 셈인데 그것이 애착이고 욕심이고, 결국 경험으로 남는 것 같아요."

예보국 예보정책과도 일기예보에 민감한 국민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예보 서비스의 시행과 운영, 정책 연구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이다.

예보정책과의 김병춘 기상사무관은 다양한 자료들을 기자에게 내놓았다.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된 초단기예보 시범서비스 현황, 8월 초 태풍 '뎬무'의 상륙 당시 특별대응반 가동 내역, 해수욕장과 산악 예보 서비스 실시 현황, 안개특보 시행 추진(9월 발표 기준 확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모두 국민을 지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7월 31일) 기상청 예보 업무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81.9퍼센트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해 69.3퍼센트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날 예보국을 방문하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예보관 회의 전 각종 기상자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예보국 직원들.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김남욱 총괄예보관(왼쪽)과 신동현 예보관.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를 걸어놓고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것을 상징적으로 과시했다(왼쪽).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진 현장인 서울 정동의 중명전.

"문화재 반환 철저한 실무 협상을"

〈조선왕실의궤〉 이외 우리 문화재 '귀향' 서둘러야

한일강제병합 1백 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한일강제병합조약에 대해 원천 무효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사과 담화를 발표하는 등 한일관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는 범위가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 궁내청에 보관 중인 도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놀라운 소식이 터져 나왔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사실상 불법·무효"임을 선언하는 한일 양국 지식인들의 목소리였다.

한일강제병합 1백 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2백13명이 이날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김영호 유한대 총장과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한국 측 지식인 1백9명은 '한국병합 1백 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한일병합이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측 지식인 1백4명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국 지식인들은 이 선언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의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구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유지해온 해석의 차이를 비교한 뒤 조약 체결 당시부터 불법·무효라는 한국 측 해석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은 기본조약상에 나오는 '이미'라는 시점의 문제였다. 한국은 '조약체결 당초'부터 불법·무효라고 보았고 일본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때'부터 무효가 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들 한일 지식인은 선언서에서 "병합의 역사에 관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해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기본조약상 나오는 '이미'라는 시점에 대한 논란 잠재워

한일 지식인들의 선언 동참은 계속됐다. 양국 지식인들은 지난 7월 2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 5백87명, 일본 측 5백31명 등 총 1천1백18명이 지식인 선언 서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에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한일강제병합일인 8월 29일에 사과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8월 10일. 한일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 지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올해를 "한일관계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담화를 시작한 간 총리는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이어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등 인도적 협력을 이후에도 성실히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일본 통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가까운 시일에 인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궁내청 반환 대상 도서 6백61책

일본 총리의 사과 담화에 대해 강제병합의 불법성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이라며 "일본의 문화재 반환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10만7천8백57점. 일본에만 6만1천4백9점이 있다. 〈조선왕실의궤〉 등 각종 도서와 전적류, 서화, 도자기, 고려 불화, 불상과 금속공예, 가야 금관 등 고분 출토품과 토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환하겠다는 〈조선왕실의궤〉는 현재 일본 왕실도서관인 궁내청 쇼로부(書陵部)에 소장돼 있다. 이곳엔 조선 의궤, 제실(帝室)도서 등 우리의 조선왕실 도서 6백39종 4천6백78책이 있다. 이 가운데 의궤는 81종 1백67책이다.

한국 측 지식인 1백9명은 '한국병합 1백 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한일병합이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일본 측 지식인 1백4명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8월 10일. 한일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 지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모두 약탈된 것만은 아니다. 궁내청 도서 가운데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6백61책. 목록을 조사한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조선총독부 기증'이란 도장이 찍힌 79종 2백69책, 대한제국의 '제실도서지장(帝室圖書之章)'이란 장서인이 찍힌 제실도서 소장본 38종 3백75책, 조선 초기부터 왕실에서 소장했던 '경연(經筵)' 인(印)이 찍힌 3종 17책"이라며 "이 책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곧 양국 간 문화재 반환 관련 실무 협상이 시작된다. 서둘러 특정 문화재를 지목하고 대응하다 보면 의궤 정도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 문화재가 언제 어떤 경위를 거쳐 얼마만큼 불법 반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G

글 · 이광표(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동아DB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측 지식인들이 '한국병합 1백 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일부 언론 운하 의혹 제기 안타까워”

구간별 최소 수심 일정치 않아 화물선 운행 불가능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최근 MBC ‘PD수첩’ 등 일부 언론이 또다시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를 연계하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3.7퍼센트, 보의 공정률은 45.3퍼센트가 진척된 상황이다. 이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여론의 양산을 중단하고 성숙한 자세로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 ‘4대강살리기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이유’라는 자료를 내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해명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 대운하 의혹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8월 19일 밝혔다.

추진본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 방어, 물 확보,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전방위적인 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운하에 필요한 갑문과 터미널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계획과 시설이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의 물길을 직선화하지 않고 현재의 자연형 하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며, 4대강의 구간별 최소 수심(2.5~6미터)이 일정하지 않아 화물선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전체 구간(1천3백62.8킬로미터) 중 수심이 6미터 이상인 구간은 26.5퍼센트(3백61.2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심 6미터 이상 구간 전체의 26% 불과

추진본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3.7퍼센트, 보의 공정률은 45.3퍼센트로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니, 이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여론의 양산을 중단하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 위치한 한강 3공구 이포보 공사 전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금강 갑천2지구 모습.

4대강살리기 캐릭터

고 성숙한 자세로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풍부한 강물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 버려졌던 강 주변의 생명과 환경을 복원해 강과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데 있다.

아울러 이미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4대강'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생명과 환경이 살아난 강에서 우리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다.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4대강살리기, 운하가 아닌 7가지 이유

1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경부 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2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 사업은 주운용 보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 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갑문 설치가 쉽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동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선박 운행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무관하다.

3 터미널이 없다.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의 터미널이 필수적이다. 또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 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하다.

4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전 구간에서 일정한 수심(최소 6.3미터)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 방어를 위해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구간별 최소 수심(2.5~6미터)이 제각각으로 화물선 운행이 불가능하다.

5 강을 직선화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운행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은 현재의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6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 폭을 유지(최소 2백~3백 미터)해야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는 자연적인 하천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 폭이 다르다.

7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대운하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교량을 철거하고 높게 신설해야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신설할 계획이 없다. 다만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는 퇴적토 준설로 기초가 드러나는 교량에 한해 기존 교량의 기초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전남 나주시 영산포 옆을 유유히 흐르고 있는 영산강. 이곳에는 생태하천, 수중보, 자전거도로 등이 들어서게 된다.

4대강 16개 보 중 첫 작동 '금강 금남보'

유럽의 강변 풍경 **금남보에서 만나다**

지난해 6월 4대강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4대강에 만들어지는 16개 보 중 금강 금남보가 가동을 시작했다. 금강에 만들어지는 3개 보 중 가장 상류에 위치한 금남보는 보 건설과 준설, 제방과 둔치 조성 등 전체 공정의 약 절반을 마쳐 내년 6월 말쯤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완공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월 13일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16개 보(洑)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을 시작한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의 금남보. 수문이 없는 고정보 사이에 설치된 가동보의 전도식 수문을 서서히 앞으로 기울이며 열어 하얀 포말과 함께 강물을 쏟아냈다.

며칠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다음인 8월 19일 금남보를 찾았을 때는 고정보 위쪽 수면에 일고 있는 흰 물결로 그 위치를 알아볼 수 있었다.

금강살리기 사업 행복지구 제1공구에 속한 금남보는 강을 가로지르는 3백48미터 길이의 보에 고정보(총 1백25미터)를 기둥 삼아 가동보(총 2백23미터)가 번갈아 섞여 있는 형식으로 시공됐다.

합강지역, 생태하천 사업으로 4대강 보 중 가장 낮게 설계

각각 61~81미터에 이르는 금남보의 가동보 3곳 중 먼저 완공된 가동보 2곳의 전도식 수문은 집중호우가 내린 뒤 보 위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금남보 상류지역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미호천과 금강 합강지역 하중도에 깃들여 사는 백로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완만한 경사의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친수형 제방에 설치되는 옥수수 녹말로 만든 생태매트. 갈대, 잔디 싹이 자라고 있다.

쪽 수위 상승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앞으로 기울여 열려 있기에 수면 위쪽으로 물결도 일지 않았다. 가동보 수문으로 전날 밤 대청댐에서 초당 5백 톤씩 방류하며 늘어난 강물이 빠져 나가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금남보 남쪽 강변에서 보면 금남보가 끝나는 북쪽 강변 너머로 한창 건설 중인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공사장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 지역은 세종시에 속하게 될 수변공간이 조성될 곳이기도 하다. 금남보 위쪽 강 양편에는 5, 6톤급 요트 24척이 정박 가능한, 수위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선착장 4곳과 역사공원, 모래강변 등이 들어서게 된다.

행복지구 제1공구 박장환 감리단장은 "오늘 금남보 수위는 평소보다 1미터50센티미터 이상 상승해 금남보의 제 모습을 보긴 어렵지만, 이는 '침수'가 아니라 물이 불어난 홍수기에 생기는 당연한 잠김 현상"이라며 "열린 수문을 통해 충분히 강물을 내보내고 있어 금남보 위쪽 생태하천이 물에 잠기는 일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에 만들어지는 3개 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금남보 위쪽은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지역이다. 크고 작은 하중도(河中島)에 갯버들, 갈대 등 친수식물과 텃새인 백로, 오리 등이 살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지여서 이곳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금남보의 높이는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낮게(4미터) 설계돼 관리수위를 1.5미터로 설정하고 있다.

행복지구 제2공구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지에는 앞으로 세종시 하수처리장에서 연기천을 거쳐 미호천으로 흘러드는 2차 처리수를 정화시켜주는 인공습지와 봄내공원, 합강공원, 한나래공원, 봉기리 한글공원 등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원들이 조성된다.

금남보를 포함한 행복지구 제1공구는 8월 초 현재 가동보 2곳 완공을 비롯해 48퍼센트의 공정을 끝냈다. 보 구간의 강폭은 1백10미터에서 4백50미터로 늘었으며 제1공구의 준설 목표(3백12만 톤) 중 약 70퍼센트가 완료돼 초당 30톤이 흐르는데 그쳤던 이 구역의 금강 수량이 준설 이후 초당 1백33톤 수준으로 늘었다.

행복지구 제2공구, 환경과 생태계 보전 위한 공원 조성

준설 덕분에 수해도 방지되고 있다. 8월 7일 연기군 일대에 하루 55밀리미터에 이르는 장대비가 내렸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금남보 일대 수위가 11.4미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금남보 수위는 10.6미터까지 상승하는 데 그쳤다.

준설로 얻는 수해방지 효과는 금남보에만 머물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금까지의 4대강 준설작업 이후 하천 단면 형상을 측량해 분석한 결과 7월 말 현재까지 전체 준설량의 26퍼센트(1억3천8백만 세제곱미터) 준설에 따라 1백 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해 최대 1.7미터까지 홍수위가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8월 16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 '우기 시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수해가 발생할 것'이란 막연한 우려가 제기돼왔으나 금남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져 장마와 제4호 태풍 '뎬무'를 맞아서도 별다른 홍수나 수해 피해 없이 지나갔다.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에 설치된 금남보의 가동보가 8월 13일 4대강 16개 보 중 처음으로 수문을 열어 강물을 흘려보내는 모습. 수직으로 서서 물 흐름을 가로막고 있던 가동보의 전도식 수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지며 강물을 쏟아내고 있다(왼쪽부터).

금남보 위쪽으로 아직 준설이 진행 중인 구역에는 준설한 흙에서 흘러나온 탁한 물이 곧바로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침사지(흙탕물을 장시간 머물게 하는 곳)와 오염방지막이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돼 임시수로를 만들고 있었다. 느린 속도로 임시수로를 거친 흙탕물은 맑은 모습을 되찾아 금강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공사 중 오염방지 예방책이 효과를 거두고 준설로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과거 대청댐에서 흐르는 맑은 본류(1급수)가 미호천(7급수)과 섞이면서 4급수에 머물던 이곳 수질은 최근 3급수 수준으로 맑아졌다.

준설 흙, 모래 선별해 판매… 연기군 31억원 순수익

이곳에서 준설한 흙을 넘겨받아 모래를 선별 판매한 연기군은 지금까지 31억원의 판매 순수익을 올렸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직접 보탬이 되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사람이 물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었던 기존의 각진 콘크리트 제방과 다른 금남보 인근의 친수형 제방과 둔치도 색다르게 다가왔다. 이곳 제방은 높이가 1, 폭이 5의 비율로 만들어진 완만한 경사의 제방으로,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갈대, 잔디, 초화류 등 씨앗을 담아둔 생태매트만을 깔아두었다. 옥수수 녹말로 만든 생태매트는 제방과 둔치에서 3년간 형태를 유지하면서 토양을 보호해 씨앗이 발아해 자라게 하고, 또 환삼덩굴 같은 생명력 강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한 다음 3~5년 사이 서서히 부패해 흙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매트다.

이곳에서 남은 공사는 가동보 한 곳과 보의 한쪽 끝에 설치되는 소수력발전소(2천3백10킬로와트 규모), 토목 공정을 마친 제방 및 둔치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편의시설 설치, 조경 등이다. 지금 공정 진행 속도대로라면 내년 6월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1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기대다.

갯버들이 우거진 하중도와 강물에 자연스레 이어지는 친수형 제방이 만들어내는 강변 풍경이 마치 유럽의 어느 강변처럼 보이는 금남보와 주변 금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연기군 지역 금강 하천변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1백여 명이 만든 하천부지생계위원회 임성묵(47·남면 양화리) 총무는 "처음에는 환경파괴 걱정도 된 데다 무엇보다 4대강살리기 사업 때문에 평생 농사를 짓던 하천변에서 쫓겨난다 싶어 반대를 했으나 막상 강변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4대강살리기가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생계 터전을 잃는다는 생각에 이웃 주민들과 대책모임을 만들고 경운기를 몰고 와 현장 입구를 막기도 했다는 임 총무는 "금강살리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보니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는 아니어도 많이 해소됐다"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친환경 공사를 하겠다는 정부와 시공사의 약속을 믿고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이곳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지만 강 살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수문 유압장치에도 자연분해성 오일 사용”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제1공구 박태균 현장소장

“금남보 공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작업은 보를 만들 공간 확보를 위해 강물의 흐름을 임시로 막을 가물막이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물이 자꾸 스며들어 오거든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가장 빨리 공정이 진행된 금남보 만들기를 지휘해온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제1공구 박태균 현장소장은 “모든 공정을 친환경으로 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가동보 수문의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오일도 혹시 강물에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연분해성 바이오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 이전까지 우리나라 하천사업은 주로 홍수를 막기 위한 제방 쌓기와 같은 소규모 공사에 그쳤고 사업의 안전성 확인도 수치를 분석하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수리모형분석을 통해 결과를 얻어 한층 더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또다시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를 연계하려는 것에 대해 최 소장은 “건설과 설계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일부에서는 보에 갑문을 걸어 운하로 바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정말 터무니없다”며 “보에 사용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동보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만 설계 시공됐는데 갑문을 걸려면 죄다 뜯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호천과 합강지역은 생태보전과 복원이 핵심”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제2공구 최승권 현장소장

“여기서부터는 보존습지입니다.”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제2공구 최승권 현장소장은 금남보에서 약 5킬로미터 상류에 위치한 제2공구 현장사무실을 출발해 위쪽 미호천과 금강 합강지역으로 향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래쪽 제1공구에서 금남보가 핵심이라면 제2공구는 생태보전과 복원이 핵심”이라고 밝힌 최 소장은 이곳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기존 환경에 손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제2공구에서 이전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과거 1950년대 항공사진에 선명하게 나타났다가 1970년대 이후 사라진 연기군 동면 합강리의 합강 부위 샛강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샛강 복원으로 합강리에서 떨어져 나온 하중도는 앞으로 자연생태계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사람의 접근이 차단된다.

제2공구 공정 역시 토목공사를 포함한 45퍼센트를 마쳤다고 밝힌 최 소장은 “제2공구에선 샛강 복원 외에 큰 규모의 공사가 없으나 합강지역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던 하천부지 농경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버려진 농약 등 폐농자재로 인한 강물 오염이 크게 줄어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4대강 16개 보, 용수·통수능력 확보

魚道·하중도 설치로 생태계 교류…소수력발전소 에너지 생산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라 모두 16개의 보(洑)가 만들어진다. 이들 보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해 최대 8억 톤의 용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문이 있는 가동보를 활용해 수질을 유지하고 홍수와 가뭄 피해에 대비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보(洑)'란 농촌 출신 사람들에게 참 정겨운 단어다. 골짜기나 평야를 흐르는 하천을 가로막아 수위를 높여서 취수(取水) 용도로 사용되는 보는 벌거벗은 개구쟁이들이 자맥질이며 개헤엄을 즐기던 물놀이 공간이기도 했다.

예부터 우리 농촌에서 관개용수를 얻기 위해 보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는 농민들끼리 '수리계(水利契)', '보계(洑契)' 등 이익단체를 조직해 보를 개·보수하거나 관리하고 운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봄가뭄이 들면 물을 모아 사용하기 위해 매년 고정된 위치에 보를 막았는데, 우기(雨期)가 되면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유실돼 다음해 봄에 다시 쌓는 것이 보통이었다.

많은 농민들이 여러 날 걸려 목책과 흙, 돌, 떼를 날라 만든 보가 무너지는 것이 아쉽긴 할 터였지만, 조선시대 보들은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져도 곧 무너지도록 만들어졌다. 만일 비가 많이 오는데도 보가 터지지 않는다면 인근의 전답을 침수시키거나 양쪽 제방을 무너뜨려 마을에 큰 수해를 입히기 때문이었다.

물을 가두긴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위에 도달하면 물을 방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보의 중요한 기능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2009년 6월) 이후 지난해 10월 4대강 유역에 설치될 16개 보의 조감도와 함께 각 보의 형태와 기능이 공개됐다.

강바닥 퇴적물 배출 및 홍수·가뭄에 기능적 대처

강바닥의 가장 낮은 곳에 설치되는 16개 보의 주요 기능은 상류의 수위를 유지하여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1조4천6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까지 한강(3개소), 낙동강(8개소), 금강(3개소), 영산강(2개소) 등 4대강에 16개 보가 완성되면 8억 톤의 용수를 확

동아DB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먼저 가동된 금강 금남보의 가동보(사진 아래쪽). 가동보와 연결된 고정보(사진 위쪽)의 모습.

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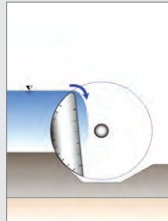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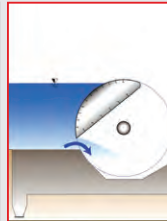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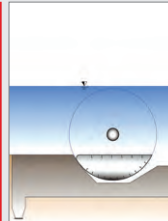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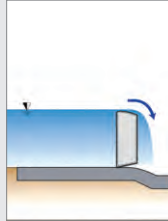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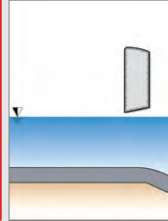
이들 16개 보는 수문이 있는 가동보를 일정 부분 혹은 전체 보(한강 여주보)에 적용하고 있어 강바닥에 쌓이는 퇴적물 배출이 가능하고 홍수와 가뭄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수를 막기 위해 무너지기 쉽게 만들었던 조선시대 보의 개념을 수문에 적용한 것이다.

일부에서 '보 때문에 인근 지역의 홍수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거나 '홍수기 보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일기예보가 전제돼야 한다' 혹은 '홍수기에는 보를 비워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전경수 성균관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에 대한 개념적 오류에서 파생한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우선 보는 높이 15미터 이하의 규모로, '하천의 흐름을 막아 저장한 물을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인 댐과 규모부터 다르며, 물을 가두는 저류공간이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 교수의 지적이다.

또 홍수 시 보 상류의 수위 상승을 막기 위해 통수능력이 필요한데, 16개 보에 설치되는 수문들이 충분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한강 여주보를 제외한 15개 보가 수문이 없는 고정보 부위와 수문이 있는 가동보 부위로 구성된다. 고정보와 가동보의 비중은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다.

금남보, '앞으로 기울었다 섰다' 전도식 수문으로 설치

가동보는 또 수문의 작동방식에 따라 ▲둥글게 돌아가는 회전형 수문 ▲앞으로 기울었다 섰다 하는 전도식 수문 ▲오르내리는 승강식 수문으로 구분된다.

8월 13일 16개 보 가운데 가장 먼저 가동된 금강 금남보의 가동보 수문은 전도식 수문으로, 전체 보 길이 3백48미터 가운데 2백 23미터는 가동보, 1백 25미터는 고정보로 만들어졌다.

16개 보 주변에는 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어도(魚道)와 하중도(하천 가운데 만든 섬)를 만들어 생태계 단절 문제를 해소한다. 또 저수로 양 끝에는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해 시간당 2억7천8백여만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들 보 디자인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건설된다. 금강 부여보는 백마강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계백장군이 말을 탄 모습을, 낙동강 강정보는 후기 가야시대의 중심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 가야금과 수레바퀴 토기를 형상화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가동보 유형

4대강 다기능 보와 수문 형식

강별	보 명칭	위치	보의 길이(m)와 종류	높이(m)	수문 형식
한강	이포보	경기 여주군	591(가동 295, 고정 296)	6.0	승강식
	여주보	〃	480(전체 가동)	8.0	〃
	강천보	〃	440(가동 350, 고정 90)	8.0	회전형
낙동강	함안보	경남 함안군	567(가동 146, 고정 421)	10.7	〃
	합천보	경남 합천군	322(가동 218, 고정 104)	9.0	승강식
	달성보	대구 달성군	579(가동 120, 고정 459)	10.5	회전형
	강정보	〃	953(가동 120, 고정 833)	11.5	〃
	칠곡보	경북 칠곡군	400(가동 232, 고정 168)	12.0	승강식·전도식
	구미보	경북 구미시	640(가동 103, 고정 537)	11.0	〃
	낙단보	경북 상주시	286(가동 142, 고정 144)	11.5	승강식
	상주보	〃	335(가동 105, 고정 230)	11.0	〃
금강	부여보	충남 부여군	620(가동 120, 고정 500)	7.0	〃
	금강보	충남 공주시	260(가동 221, 고정 39)	7.0	〃
	금남보	충남 연기군	348(가동 223, 고정 125)	4.0	전도식
영산강	죽산보	전남 나주시	607(가동 184, 고정 423)	8.9	승강식
	승촌보	광주 남구	540(가동 180, 고정 360)	9.0	〃

www.forest.go.kr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희망 에너지
목재펠릿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목재펠릿이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청정 바이오연료입니다.

목재펠릿은 이런 점에서 좋습니다.

- 목재를 고밀도로 압축 가공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적재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입니다.
- 연소 후 이산화탄소와 재는 산림으로 되돌아가므로 자원의 순환이용에 기여합니다.
- 목재펠릿을 이용하면 기름보일러보다 난방비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정 난방, 공공건물, 산업시설, 열병합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목재펠릿의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엄격히 관리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 위해 '희망 삼총사'가 떴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호응을 얻은 '햇살론',
창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은행권 서민대출인 '희망홀씨'.
담보도, 신용도 없는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 희망 삼총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금융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 복지입니다.
서민금융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햇살론
미소 금융
희망 홀씨

일러스트 · 이우정

7월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 내 포스코미소금융지점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출 상담에 나서 서민대출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있다.

'친서민 금융'은 상생의 경제 디딤돌

햇살론·희망홀씨로 친서민 금융안전망 구축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건설을 후반기 국정 기조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실천방안이며 최근 서민금융 정책에서 이러한 실천정신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자유방임주의와 공평주의 진영 사이에서 일어난다."

지난 5월 국내에 소개되자마자 금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사회지도층의 필독서가 되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꼽은 우리 시대 정치 논쟁의 핵심이다.

샌델 교수는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것이 '자유시장주의자들'이라면서 "이들은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공평주의 진영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자유방임이냐 공평주의냐로 양분할 수 없다. 정치가 사회적 이상(理想)을 추구한다면 정책은 현실적, 실질적 어젠다(Agenda·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

서민금융 상품 삼총사 비교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
대출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창업 희망자, 운영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저신용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 저신용자
대출 금리	연 4.5%	연 10~13%	연 7~13%
대출 성격	서민 사업·창업 지원	서민 고금리 부담 감소	서민 생계 지원
대출 기관	비영리단체(미소재단)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시중은행
재원	기부금 및 휴면예금	서민금융사 출연금, 정부 재정	시중은행 자체 자금
용도	사업·창업자금	사업·창업·생계자금	생계자금

축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위한 고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발전의 신화'를 창조할 토대를 닦았다"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념 토대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변화에 대한 갈증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발전 신화'의 토대

아직도 살기 어렵다는 시장 할머니,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젊은 어머니, 취업이 걱정인 젊은이들이 기존 정책만으로는 희망과 행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이 밝힌 '변화에 대한 갈증'의 이유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 번 친서민 중도정책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할 것이며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역시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체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변화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극빈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펴온 이 대통령은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반값 또는 시중가의 70~80퍼센트에 내 집을 장만하는 보금자리주택, 시중은행의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인 희망홀씨, 영세 상인의 자립을 돕는 미소금융 등 친서민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런 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변화'를 강조한 것은 지난 7월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 입구의 포스코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일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을 직접 만나 대기업 캐피털의 대출 금리가 30퍼센트대 이상의 고금리라는 실상을 알고 나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상생(相生)의 경제'를 강조하며 특히 서민금융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의 대출 자격 요건이 완화된 데 이어 지난 7월 26일에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한 '햇살론'이 나오게 됐다.

'상생의 경제'에서 서민금융은 매우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연구원은 〈상생의 경제학〉(2009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생의 시장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경제주체 간 성장 격차를 시장친화적인 방식, 즉 상생의 메커니즘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은 시장제도와 복지제도를 양 축으로 하여 구성되며, 금융제도는 취약계층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시장제도의 한 축이다."

물론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과 같은 정부 주도 서민금융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생의 경제'에서 서민금융은 매우 중요

심지홍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독경상학회에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의 목표와 과제'(2010년)란 논문에서 "서민금융시장은 신용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서민 중에서도 저신용자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서민금융 정책은 단기적 시각보다는 신용교육, 신용정보, 신용평가제도와 같은 장기적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희망홀씨만도 대출 규모가 2조원대(지난 5월 말 현재)에 달하고 햇살론도 출범 20일 만에 2천억원을 넘길 정도로 서민금융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부실이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시장·제도연구부장은 "미소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은 단기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처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을 위한 자체 대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정부 주도 서민금융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동아DB

미소금융으로 서민들 빙그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수혜 대상 확대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미소(美少)금융 사업이 출범 9개월째를 맞았다. 그동안 3천9백58명이 창업자금, 운영자금, 무등록 사업자 자금용으로 총 2백36억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최근 정부와 업계는 미소금융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8월 17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중고 오토바이 수리매장. 정진덕(48) 씨가 구슬땀을 흘리며 소형 오토바이의 엔진오일 필터를 교환하고 있다. 엔진에서 폐오일을 빼내고 작은 부속품을 갈아 끼우는 손놀림이 능숙하다. 남편에게서 7년 전부터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이다.

"아직 엔진 고장 같은 수리에는 손을 못 대지만, 사소한 건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수리기사 한 사람 인건비는 절약되는 셈이죠."

부부가 운영하는 60제곱미터 남짓한 가게에는 단골이 많다. 주로 인근의 창신동 옷 공장, 동대문종합시장, 방산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퀵서비스 기사들이다. 어떤 때는 고장 난 오토바이들이 줄을 서는데도 별로 남는 게 없다. 부품 값이 많이 오른 탓에 남는 건 두 사람 인건비다. 가게 월세를 내고 초등학생 둘과 유치원생 하나, 이렇게 세 아이를 양육하며 살기엔 빠듯하다.

기부금·휴면예금 등 10년간 2조원 재원 마련

다행히도 올해는 미소금융 덕분에 가계의 주름이 펴졌다. 월세와 생활비 걱정이 태산 같았던 지난 겨울 하나미소금융재단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오토바이 수리매장을 운영하는 정진덕 씨는 무담보로 미소금융을 대출받아 가게 월세와 세 아이 양육비 걱정을 한결 덜었다.

중고 오토바이들을 샀고, 이 오토바이들을 수리해서 팔아 한 대당 1백만~2백만원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부 수리만 해갖고는 만질 수 없는 목돈이다.

"담보가 없으니 어디 돈 빌릴 데가 없었는데, 미소금융 덕에 참 유용하게 돈을 빌려 썼습니다. 미소금융재단 직원들이 제 일처럼 걱정하고 공감해주시니 고마웠고요.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요."

정 씨가 빌린 1천만원은 연리 4.5퍼센트. 거치기간 6개월을 거쳐 8월부터 매달 18만6천원씩 6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한다. 정 씨는 "우리 부부가 오토바이를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온다. 열심히 일하면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을 수 있다"며 밝게 웃었다.

대출 자격 완화 위해 '미소금융 신용평가 시스템' 적용

지난해 12월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에는 정 씨의 사례와 비슷한 사연들이 모이고 있다. 경기 시흥시 아파트단지 앞에 손수레를 세워놓고 과일 노점을 하며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석모(38) 씨. 그는 올여름에 현대차미소금융재단에서 무등록 사업자 지원자금으로 5백만원을 대출받아 가게용 컨테이너 부스를 구입했다.

또한 제주에 있는 한 숯불고기 식당의 경우 허름한 실내를 도배하고 화장실을 깔끔하게 고치자 고객들이 다시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친구 빚보증을 섰다가 신용회복 중인 주인 이모(51) 씨에게 미소금융 대출금 5백만원은 알토란 같은 자활자금이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미소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연한 기부금과 휴면예금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첫 미소금융 지점이 문을 연 이래 올해 7월 말 현재 전국에 56개 미소금융 지점이 개설됐으며, 3천9백58명이 총 2백36억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주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무등록 사업자 자금용이다.

초기에는 미소금융 대출 실적이 저조했지만 최근 들어 대출 액수와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에 7억4천만원에 불과하던 대출 실적이 7월에는 42억2천만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5월부터 각 재단이 수혜 대상을 기존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전통시장 상인, 용달사업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면서부터다. 8월 들어 신한·삼성·SK미소금융재단이 출연금이나 지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수혜자를 더 늘리기 위해 미소금융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신용정보사, 소상공인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미소금융 통합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대출심사와 승인,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 미소금융 대출 부적격자에게 즉석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연계해 주는 '서민금융 통합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부는 '미소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대출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신용 7등급 이하인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다. 정부는 미소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부금과 휴면예금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5일부터는 대출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미소금융 지원 대상(신용등급 7등급 이하)보다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되어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6월 말에는 대출자들을 지원하는 '미소희망봉사단'이 출범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장훈기 본부장은 "변호사, 경영컨설턴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미소금융 대출자들에게 창업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봉사단체"라며 "서민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어떤 '미소'를 드릴까요

미소금융재단별 다양한 상품 선봬

일러스트 · 문지혜

박모(48) 씨는 8월 초 구입한 새 용달차를 타고 거래처를 다니니 신바람이 난다. 채소를 가득 싣고 음식점에 배달하는 그에게 성능 좋은 새 차는 '천군만마'다. 13년을 몰고 다닌 고물 용달차가 자주 말썽을 부려 배달시간에 늦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래처를 더 늘려도 될 정도다.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은행 대출이 막혀 있던 그에게 용달차 구입자금 1천만원 대출은 뜻밖의 선물이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지난 7월 15일 1톤 이하 용달화물차 사업자만을 위한 '용달사업자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8월 중순 현재까지 박 씨와 같은 용달사업자 36명에게 대출을 해줬다. SK미소금융재단은 이들에게 용달화물차 구입비로 2천만원을 연리 4.5퍼센트에 빌려준다.

올해 6월 정부에서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물론 각 기업·은행계 미소금융재단이 취약계층 대상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표 참조).

확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인세법상 소액 신용대출 사업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알뜰시장 노점상,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미용사, 북한이탈주민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하나미소금융재단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한다. 우리·포스코·신한·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대출상품도 출시했다.

KB미소금융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지역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에게 필요자금을 빌려준다. IBK미소금융재단은 경기 안산시나 부천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해준다. G

글 · 최은숙 기자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

출처: 미소금융재단

구분	상품명	대출 대상	자금 용도 및 대출 한도	이자율
전 재단	전통시장 상인 자립 지원	전국 1천5백여 전통시장 영세 상인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유점포 : 1천만원, 무점포 : 5백만원)	4.5% 이내
하나미소	알뜰시장 상인 자립 지원	등록 노점상	• 운영 : 5백만원 • 시설 : 1천만원	4.5% 이내
우리미소, 포스코미소	다문화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정(우리·포스코 공통), 한부모가정(우리)	• 창업 : 2천만원 • 운영(시설) : 1천만원 • 무등록 사업자 : 5백만원 • 다문화가정 자립 : 5백만원	창업·운영·시설·자립 : 4.5% 이내 무등록 사업자 : 2% 이내
KB미소	경기 무한돌봄사업 지원	경기 위기가정 대상 무한돌봄 사업 수혜자(졸업자 포함)	• 창업 : 3천만원 • 운영(시설) : 1천만원 • 무등록 사업자 : 5백만원	무등록 사업자 : 1% 창업·운영·시설 : 4.1%
IBK미소	미용사 희망대출	안산·부천시에서 미용실을 창업·운영하는 사업자	• 창업 : 2천만원 • 운영 : 5백만원	4.5% 이내
신한미소	인천시 다자녀가정 지원	인천 거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창업 : 5천만원 • 운영(시설) : 1천만원 • 무등록 사업자 : 5백만원	창업·운영·시설 : 4% 무등록 사업자 : 2% 이내
현대차미소	H하나론	5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중 자활 목적	• 창업 : 5천만원 • 기존 사업자 : 3천만원	창업 : 2% 기존 : 4.5%
	자활용차량 구매자금	생계형 차량 구매자	• 차량구입 : 5천만원 • 부대비용 : 2천만원	4.5%
SK미소	용달(화물)사업자 지원	용달협회 회원이며, 용달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용달화물차 구입비 2천만원	4.5% 이내

이순동 삼성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기업이 해야 할 새로운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미소금융이야말로 새로운 사회공헌 방법을 찾고 있는 대기업에 시의적절한 제도죠."

삼성그룹 홍보실과 삼성사회봉사단을 거쳐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순동(63) 삼성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미소금융은 사회복지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어려운 이웃을 만나 도와주는 창구"라고 말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문 전통시장 안에 국내 1호 미소금융지점을 여는 등 미소금융업계의 선두주자다. 기업·금융업계 미소금융재단 11곳 중 지점 수(7개)나 대출 실적(17억원) 면에서도 앞선다.

출연금 6백억원으로 늘리고 9월까지 지점 6곳 개설 계획

최근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영세 화물차주, 노점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까지 미소금융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순동 삼성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미소금융은 기업이 직접 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제도"라고 말했다.

8월 10일에는 올해 출연금을 당초 3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늘리고 9월까지 서울 구로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등에 지점 6곳을 개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매년 3백억원씩 10년 동안 총 3천억원을 출연한다는 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미소금융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대출 자격을 까다롭게하고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목적으로 한정해서인지 대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의 경우에도 지난 7월까지 대출 실적이 1백79건, 총 17억원에 불과했어요. 이번 수혜 대상 확대로 월 40억~60억원의 대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지방의 전통시장을 순례하면서 미소금융의 장점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느꼈다고 한다.

"주변에 저신용자로 낙인찍힐까봐 미소금융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는 법이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소외당하던 분들이 떳떳하게 미소금융의 도움을 받아 자립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더 큰 나눔을 실천하겠죠. 이처럼 '상부상조'의 미덕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미소금융입니다."

최근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상부상조 제도의 하나로 '삼성미소 프렌드십'을 도입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인 서포터스를 1 대 1로 연결해 꾸준히 돕는 제도다.

주로 삼성그룹 임직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포터스는 자활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은 물론, 자녀 장학금이나 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할 계획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그늘진 삶에 등불 '햇살론' 인기몰이

대출 실적 상승곡선… 8월 현재 2천여 억원 기록

지난 7월 26일부터 대출 업무를 개시한 햇살론이 그 이름처럼 서민들의 그늘진 삶을 환히 밝혀주는 희망 전령사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10퍼센트 초반대의 저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의 대출 실적은 8월 16일 현재 2천여 억원을 넘어섰다.

햇살론을 처음 판매한 서울 신길동 영등포농협 본점의 최영기 주임이 8월 17일 한 고객과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30~40분씩 상담하다 보면 드라마 같은 사연들이 쏟아집니다. 대출도 대출이지만 갑갑한 속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 신길동 영등포농협 본점의 조희성 계장은 햇살론 대출상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햇살론은 미소금융에 비해 이율이 높지만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자도 별도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연리 10퍼센트 초반대로 생계자금 대출이 가능한 게 큰 장점이다. 이 때문에 돈줄이 막혀 살길이 막막한 서민들이 주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전국 3천9백89곳서 맡아

경기 광명시에 있는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단칸방. 회사원 유순철(가명·35) 씨가 두 자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보금자리다. 유 씨는 5년 전 투자 실패로 재산을 몽땅 날리고 졸지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낙인찍히는 곤욕을 치렀다. 지난 3년간 신용회복 과정을 거치며 올해 1월에야 빚을 모두 청산한 그는 방 두 칸짜리 월세집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신용등급이 8등급인 게 문제였다. 시중은행 대출이 곤란하자 대부업체를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대출이율이 터무니없이 높아 마음을 접었다.

그러던 차에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이 출시돼 유 씨는 소박한 꿈을 이루게 됐다.

"근로자 생계자금으로 6백만원을 대출받았어요. 기존 보증금 5백만원과 이번에 빌린 6백만원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 두 칸짜리 월세를 구하고 있

어요. 햇살론 덕에 인생의 희망을 봤습니다. 앞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 성실히 갚을 겁니다."

자동차판매 영업사원 이모(42) 씨도 햇살론의 도움으로 급하게 필요한 생계자금을 마련했다. 이 씨는 서울 신길동 영등포단위농협에서 연 9.65퍼센트의 금리로 1천만원을 빌려 햇살론의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 부천시의 남부천신용협동조합에서는 설비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는 또 다른 이모(50) 씨가 첫 대출을 받았다. 이 씨는 "이번 학기 학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걱정하던 차에 생계비로 8백만원을 대출받게 돼 정말 기쁘고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민금융 상품 삼총사 중 가장 후발주자인 햇살론의 인기몰이가 한창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대출을 시작한 햇살론의 대출 실적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7월 28일 출시 이틀간 18억원이 넘는 대출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영업 11일이 지난 8월 9일에는 누적 대출 실적이 1천1백7억원, 7일 뒤인 8월 16일에는 2천2백8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은 "서민들의 생계자금이 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사업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시행 초기인 만큼 보증심사를 하는 기간이 생계자금보다 길어 아직 실적이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붙으면 대출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햇살론 판매는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천9백89개 서민금융회사들이 맡고 있다. 대출 금리는 7월 26일 기준으로 상호금융은 10.6퍼센트, 저축은행은 13.1퍼센트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퍼센트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퍼센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정대출 막기 위해 대상 조정·여신심사 강화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생계자금은 3~5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노점상,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무점포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연체나 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 제한 업종 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햇살론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고소득자가 햇살론을 부정대출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햇살론의 건강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부실화를 막기 위해 대출 대상 조정과 여신심사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

금융위원회는 먼저 여신심사 강화 차원에서 대출 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햇살론 대출 한도를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도가 낮은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와 허위 직장정보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희망의 홀씨 심고 '인생 웃음꽃'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 바탕으로 희망홀씨대출 마련

1백만원과 같은 소액에 서민들은 울고 웃는다.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들의 학자금을 낼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저렴한 금리로 목돈을 빌릴 수 있는 희망홀씨대출을 지난해 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자들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돈은 저와 제 딸을 살린 희망의 불씨예요."

다섯 살 난 딸 혜미(가명)를 키우는 싱글맘 이현정(가명 · 32) 씨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온 것은 7년 전이었다. 3년간의 열애 끝에 남편과 결혼한 이 씨는 신혼의 행복한 단꿈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운영하던 세탁편의점이 망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기술직에 취업한 남편은 보수가 형편없다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을 마셔댔고 결국 알코올중독에 이르러 직장마저 그만뒀다. 딸 혜미가 태어난 후에도 남편의 알코올중독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급기야 흉기를 들고 모녀에게 난동까지 부려 입원을 하기도 했다.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나뿐인 딸에게 하루살이처럼 무능력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이혼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다. 그러나 결혼 당시 빌렸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매월 갚아야 하는 대금들이 많았다. 사글세 33만원도 버거웠다. 마이너스 대출 한도마저 다 쓴 상태였다.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 한 권 못 사주는 처지였다.

신용 7등급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

그러나 이 씨는 '사채만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은행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연 12퍼센트의 금리로 '희망홀씨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원과 16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은 생활안정자금만 지원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한도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서울 목동의 한 은행에서 6백40만원을 빌렸다. 이 돈으로 먼저 이자가 높은 카드론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채무를 갚았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힘이 됐다. 딸 이름으로 청약저축을 들었고 살림살이도 차근차근 장만했다.

이 씨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희망홀씨대출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이 같은 이 씨의 가슴 저린 희망 이야기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매일경제〉가 마련한 희망홀씨대출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 씨 외에도 17명의 수상자가 희망홀씨대출 덕분에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등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를 전했다.

희망홀씨대출 한도 5백만~2천만원 · 금리 7~19퍼센트

서민에게 희망의 홀씨를 나눠주는 희망홀씨대출은 지난해 3월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과 16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과 다르게 생활안정자금만 지원한다.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다. 상담을 통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 중인 사람, 연체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받기 어렵다.

그동안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은행들이 부실 발생 위험이 높은 저신용, 저소득자의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시작된 희망홀씨대출을 마련한 은행들은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성도 희망금융팀장은 "제한된 재원으로 운용되는 다른 서민금융 제도에 비해 은행대출이라는 상업적 방식을 택해 대출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금융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희망홀씨대출 한도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이며, 금리는 은행에 따라 7~19퍼센트다. 희망홀씨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4만9천명에게 2조3천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전체의 61.3퍼센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79.2퍼센트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지금도 매월 2천억원 가까이 신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희망홀씨대출은 연체율이 높지 않아 앞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희망홀씨대출 연체율은 2.02퍼센트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하면 다소 높아졌으나 시중은행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시중은행별 희망홀씨대출 상품명 및 금리 현황(2010년 4월 기준)

은행명	상품명	금리(%)
국민	KB행복드림론, 근로자생계신용보증	8~16
우리	우리이웃사랑대출, 우리이웃사랑근로자생계보증 등	5~13
신한	신한희망대출	10~12
하나	희망하나더하기대출 등	3~11
씨티	희망플러스대출	14~23
외환	희망파트너대출	6~15
SC제일	희망드림론	8~14
농협	새희망대출, NH근로자생계신용보증, 생계형무등록사업자대출, 자영업자재기대출	7~11
기업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2~3
수협	사랑海희망대출	8~10
경남	희망나눔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7~20
광주	KJB희망드림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7~17
대구	DGB희망홀씨대출,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7~19
부산	크레딧플러스론, BS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7~18
전북	퀵플러스론	14~20
제주	제주희망나눔대출	10~14

내게 딱 맞는 상품 골라볼까

대출 목적·금리·기간 등 조목조목 따진 뒤 선택해야

서민금융 상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각각의 장단점과 대출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정부 주도의 햇살론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햇살론 창구를 두드리기 전에 대출 목적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소금융이나 희망홀씨대출이 한결 유리한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 이우정

미소금융은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위한 상품이며 희망홀씨대출은 긴급생계비에 포커스를 맞췄다. 햇살론은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등 3가지 상품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햇살론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대출 대상의 폭이 나머지 두 상품보다 넓다. 신용 6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된다. 금리는 연 10퍼센트 초반이다. 창업자금으로는 최고 5천만원, 사업운영자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며 긴급생계자금 용도로는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미소금융, 자영업자·창업희망자에게 최고의 조건 제공

미소금융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계획 중인 서민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공한다. 금리가 최고 4.5퍼센트에 불과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다만 대출 절차가 까다로운 게 흠이다. 자금 용도 및 활용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창업의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 보고서가 필요하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전국의 미소금융 지점이 올해 7월 말 현재 56개에 그치고 있다.

희망홀씨대출은 시중은행이 재원을 마련했다. 문턱이 높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7등급 이하 신용등급을 가진 저소득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금리는 10퍼센트 초반대지만 상품에 따라 1~3퍼센트의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잘 따져볼수록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s119.fss.or.kr/seomin/sub_01_05.jsp)를 참고하면 좋다. 대출 금액은 다소 적다. 최대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보통 1백만~6백만원 정도 승인해준다.

이들 서민금융 3총사를 가상의 사례에 적용해 좀 더 쉽게 비교해봤다.

전통시장 좌판에서 20년간 채소를 팔아온 A(50)

3대 서민금융 상품 입체 비교

		상품명	대출한도	금리(연)	최장 대출기간	필요서류	신청~대출 소요기간
전통시장 좌판 상인 A씨(50세) 신용 8등급, 연소득 1500만원	햇살론	NH사업운영자금	600만원	10.51%	5년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등 3장	10일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	500만원	2%	5년	소득증빙서류 등 3장	3, 5일
	희망홀씨	우리이웃사랑대출	2000만원	9.60%	5년	국민연금납부증명원 등 2장	1, 2일
꽃집 창업희망자 B씨(34세) 신용 7등급, 연소득 없음	햇살론	창업자금	5000만원	10.51%	5년	창업교육 수료증 등 4장	10일
	미소금융	창업임차자금	5000만원	4.50%	5년	창업교육 수료증 등 4장	7일
	희망홀씨	해당 없음					
용역미화원 C씨(66세) 신용 10등급, 연소득 960만원	햇살론	NH긴급생계자금	400만원	10.51%	5년	재직증명서 등 3장	3, 4일
	미소금융	해당 없음					
	희망홀씨	IBK근로자생활안정 자금대출	1000만원	1~3%	5년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1, 2일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A씨와 창업자금이 필요한 B씨, 생계자금이 필요한 C씨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 비교표. 금리, 기간 등을 조목조목 따져 선택해야 한다.

씨는 신용 8등급의 저신용자다. 연소득은 1천5백만원 정도다. 그는 원산지의 가격 상승과 좌판 교체비 때문에 5백만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A씨가 농협 햇살론 창구를 통해 사업운영자금을 빌릴 경우 최장 5년간 6백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금리는 지점마다 다르지만 최대 연 10.51퍼센트가 적용된다. 좌판의 경우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상인연합회 또는 점포가 있는 이웃 상인에게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전·월세집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야 한다. 대출 신청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영업일 기준 10일이 걸린다. 현장 실사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절차가 있는데 최근 햇살론 신청이 폭증하면서 처리할 서류가 밀린 탓이다.

A씨가 미소금융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5백만원을 길게는 5년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햇살론보다 약 8퍼센트 포인트 낮은 2퍼센트가 적용된다. 준비서류는 햇살론과 큰 차이가 없다. 본인이 기록한 소득증빙서류와 자금활용계획서만 추가된다. 서류만 접수되면 3~5일쯤 뒤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희망홀씨 상품인 '우리이웃사랑대출'을 이용한다면 최대 2천만원을 9.60퍼센트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대출 절차는 1, 2일이면 완료된다. 5백만원이 필요한 A씨는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셈이다.

한 차례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B(34) 씨는 플로리스트 과정을 이수한 후 꽃집을 내려고 한다. 그런데 가게 보증금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신용 7등급인 B씨가 고를 수 있는 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이다. 두 상품 모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최대 5천만원을 5년 동안 빌려준다. 하지만 금리는 미소금융이 4.50퍼센트, 햇살론이 10.51퍼센트로 차이가 크다. B씨에게는 금리가 6퍼센트 포인트 낮은 미소금융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창업 대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대출은 보통 5일이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만 창업 대출을 받을 때는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통해 창업교육을 받은 뒤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미소금융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 보고서까지 요구하며 자기자금 비율을 30퍼센트까지 갖추게 하고 있다. 재산도 일정 수준(대도시 1억3천5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 생계형 대출은 햇살론·희망홀씨대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용역미화원으로 일하는 C(60)씨. 남편의 사업 부도로 빚을 떠안아 신용등급이 최저 수준인 10등급이다. 월급은 80만원인데 당뇨를 앓고 있는 남편의 의료비로 절반 이상 지출돼 생계자금이 필요하다.

C씨는 햇살론과 희망홀씨대출 중에서 상품을 고를 수 있는데 저소득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춘 기업은행의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최대 1천만원을 1~3퍼센트의 금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용도라면 한도는 7백만원이고, 금리는 3퍼센트가 적용된다. 임금체불에 따른 생계비(7백만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6백만원), 요양급여비(1천만원) 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으로 보증을 신청하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은행 창구에 내기만 하면 된다.

햇살론 대출을 받으면 최대 4백만원을 5년 동안 10.51퍼센트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등이 필요하다. 희망홀씨대출이 3백만원을 더 빌려주고 금리도 7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다. G

글 · 오달란(서울신문 경제부 기자)

서민에게 함박웃음 드리는 일 “휴가? 반납했죠”

금융위원회 비상금융합동대책반 ‘구슬땀’

서민금융 관련 제도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과 중소금융과. 지난해 미소금융과 최근의 햇살론 출범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서민금융이 든든하게 자리매김할 때까지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들을 찾았다.

“비상금융합동대책반이 떴다!”

지난 7월 중순부터 보름간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현장 점검을 위해 전국 산업공단 인근의 은행 및 보증기관 창구를 방문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비상금융합동대책반’의 이름하에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 비상시기를 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매달 시급한 경제 현안에 맞춰 비상금융합동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7월에는 중소기업과 서민 경기회복 체감도 증진을 위해 ‘서민금융’을 주제로 삼고 담당 부서인 서민금융팀과 중소금융과가 함께 현장 실사에 나섰다.

사실 지난 2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과 중소금융과는 중소서민금융과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해왔다. 그러나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국가적 어젠다로 자리 잡으면서 서민금융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 내용이 늘었다. 한 부서였을 땐 서민금융 지원정책과 서민금융기관 정책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졌지만 미소금융과 햇살론 출범을 계기로 한 과가 두 개 분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서민금융 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과 중소금융과 직원들. 앞줄 왼쪽부터 장석인 사무관, 이미란 실무관, 신진창 팀장, 추선호 주무관, 이승순 과장, 뒷줄 왼쪽부터 신정수 사무관, 이광섭 차장, 김정주 사무관, 안현찬 사무관, 주홍민 사무관.

원정책을 맡아온 서민금융팀이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을, 서민금융기관 정책을 맡아온 중소금융과가 햇살론을 담당하게 됐다.

이렇듯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과 중소금융과는 그간 서민금융의 제도적 내실화에 애쓰느라 아쉽게도 현장을 자주 찾지는 못했다.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부서가 나뉜 것을 알리고 서민금융 제도가 얼마만큼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시장 등을 방문해 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7월 16일 KB미소금융 서울 도봉지점에 현장점검을 나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주홍민 사무관은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한 커피숍 여주인을 만났다. 주 사무관은 "그동안 미소금융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들여다보다 직접 수혜자를 만나보니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컨설팅을 통해 사전,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창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에서 수혜자의 만족도가 컸다"며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팀의 목표"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서민금융팀이 확인해 알려준다.
▶서민금융팀 이승순 과장은 미소금융 현황 분석 등을 맡고 있다.

"창업자금 대출에서 컨설팅까지 수혜자 만족도 커"

지난해 12월 미소금융 출범 이래 서민금융팀은 하루하루가 야근의 연속이다. 엄청난 업무량은 신진창 팀장을 필두로 서민금융정책 총괄과 미소금융지점 설립 확장을 담당하는 주홍민 사무관, 미소금융 대출과 신용회복 업무를 맡은 안현찬 사무관, 미소금융 및 신용회복 관련 민원 해결을 돕는 추선호 주무관 등 7명의 팀원이 처리하고 있다.

추선호 주무관은 "미소금융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 신문고나 청와대에 올라온 민원들을 살펴보면 70퍼센트 이상이 생계안정자금 대출을 문의한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지원 요건을 상실했거나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진 분들이 많다. 더 늦기 전에 많은 분들이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휴가도 반납하고 정신없이 미소금융을 알리기 위해 일하는 서민금융팀은 언론이나 세간의 지속적인 관심에 고맙기도 하지만 답답할 때도 많다. 미소금융 자격 요건이나 대출 실적에 관한 비판적인 시선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운영되는 미소금융 지점도 58개에 불과해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을 지켜봐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미소금융 관련 정책의 기틀을 세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팀원들을 자랑스럽게 만든 건 지난 6월 15일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이크로파이낸스-도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다. 세계은행(WB)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 미소금융 정책의 성과와 내용을 알렸다. 주홍민 사무관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우리 서민들의 힘이 되기 위해 올해 말 미소금융 1백 개 지점 개설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범한 햇살론을 담당하는 중소금융과 역시 정신없이 바쁘다. 중소금융과는 서민금융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서민금융회사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부실화하지 않도록 맞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 4개 부문에 각 1명의 사무관이 배치돼 일하고 있다.

김정주 사무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신협이나 농협 등 신용협동조합, 즉 햇살론과 연계된 상호금융기관을 담당해 더욱 바빠졌다.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과 달리 햇살론은 아직 문의 창구가 많지 않아 이를 담당하는 김 사무관의 사무실 전화기는 늘 불이 난다.

"서민의 힘 되기 위해 미소금융 1백 개 지점 개설"

그는 "하루 평균 1백여 통의 전화가 오는데 각종 회의 참석이나 홍보 업무로 일일이 받지 못해 죄송하다"며 "그만큼 햇살론을 아끼는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월 초 서울 답십리의 서민금융회사와 대전에 있는 신협과 농협 등지를 다녀왔어요. 실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햇살론으로 삶의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혜택을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여름휴가요? 아직 못 갔어요. 휴가 대신 먹고살기 힘든 서민을 돕는 햇살론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야근합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도전하세요! 서민의 꿈 '창업'

자영업자·장애인에게 창업자금 지원

창업은 요즘 서민들의 꿈이다. 하지만 창업 준비 과정에는 큰 장애물이 있다.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만큼 자기 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는 서민들의 오랜 꿈을 이뤄주기 위한 다양한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년 만에 제 꿈을 이뤘어요."

지체장애 3급 한수희(43)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 어릴 적 걸린 열병으로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해 걷는 일이 쉽지 않지만 대신 자유로운 두 손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아홉 살 때부터 배운 피아노는 그의 인생의 전부. 학부 전공으로 전문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그는 피아노에 인생을 걸었다. 그러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꿈은 멀어져갔다. 유명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도 꿈결처럼 흩어졌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탓에 그는 사무보조, 전화상담 등 다양한 일을 해왔다. 하지만 불편한 몸이 늘 문제였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치 않은 시선과 체력적인 한계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대로 살아야 하나' 좌절했던 그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에게 피아노 학원을 차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 것이다.

창업은 개인 능력과 경제력 키울 수 있는 디딤판

한 씨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준 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창업자 대상 영업장소 전대 지원금제도.

한 씨는 거주지 인근 상가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전세금은 무려 1억원. 그러나 이렇게 큰 액수를 한 번에 지원받았다. 대신 연 1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전대료 5백만원을 선납했다.

2008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게 된 그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평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스무 명의 아이에게 피아노로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민에게 창업은 희망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창업이야말로 개인의 능력과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디딤판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창업은 고용 창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토록 서민들이 바라는 창업은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과 지원금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현재 창업 성공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하고, 창업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창업지원금 마련이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기를 살리고 그들이 꿈을 이루도록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컨설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자영업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자금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담보·보증여력 없는 서민 자립 기회 제공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창업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드림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

미소금융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와 협약해 서민들의 창업을 도와준다. 올해 처음 생긴 경기 과천시 희망금융 관련 설명회.

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구직등록 후 실업상태) 중 담보나 보증여력이 없는 가구주다. 공단 측은 이들이 최고 7천만원 범위 내의 점포를 임차해 연 3퍼센트 저리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총 74억원 규모로 1차(2월 16일~3월 5일), 2차(7월 12~30일)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최종 심사해 선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kcomwel.or.kr**

장애인도 창업의 꿈 이뤄요!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영업장소 전대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창업을 하려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와 영업장소 전대 지원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라면 1인당 5천만원까지 연리 3퍼센트,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시설·장비 구입비, 임차보증금 등 창업 소요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창업자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영업장소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이지만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전세금 연 2퍼센트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거나 연 1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전대료를 선납해야 한다.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올해 6월 말 수혜자를 선정했으며 내년도 사업부터는 중소기업청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 말 새로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kead.or.kr

자금에서 컨설팅까지 창업의 모든 것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중소기업청은 올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자금으로 3천억원을 마련했다. 나들가게 육성자금, 우선지원자금, 동절기 지원자금 등이다. 자금 대출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금리 인하에 따라 연 4.5퍼센트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5년 이내다.

우선지원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

조영철 기자

지체장애 3급인 한수희 씨는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 지원의 혜택을 받아 평생의 소원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게 됐다.

관련 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나들가게지원금 외에 나머지 자금은 소진된 상태다. 내년 초 중소기업청이 발표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청 ☎ 1357 smba.go.kr

마이크로크레디트도 창업 도와요!

서울시 희망드림뱅크, 경기 과천시 희망금융, 서울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단체와 손잡고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출범한 서울시 희망드림뱅크. 올해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서울시는 지난 2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수행기관별로 대출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경기 과천시 희망금융 창업지원사업과 서울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은 사회연대은행이 맡아 진행하며 현재 수시 접수 중이다. G

사회연대은행 ☎ 02-2274-9637 bss.or.kr

글 · 김민지 기자

“무보증·무담보로 희망 빌려드려요”

근로복지공단, 저신용 저소득·임금체불 근로자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이 같은 대부사업으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 산업재해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팍팍한 삶에 희망이 움트고 있다.

조영철 기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행정복지팀 김은희 대리(사진 오른쪽)가 고객에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설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박성재(가명·경기 부천시) 씨. 온 나라가 한일월드컵으로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던 2002년 여름,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베트남전에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뒤 술과 노름에 빠졌다가 10년 전부터 마음을 다잡고 주차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두 차례 뇌종양 수술, 의안(義眼) 수술, 치과 수술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국가유공자여서 수술비와 진료비는 무료였지만 시각장애인인 어머니에게 간병을 맡길 수 없어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간병비로 지불해야 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병석에 누워 있던 아버지는 2007년 급기야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한 지 1년 2개월 만에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상태로 돌아가셨다.

저소득 근로자 ‘희망드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당장 장례비가 필요한데 수년간 간병인을 쓰다 보니 그와 어머니는 이미 은행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이 바닥난 상태였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자 남은 건 빚뿐이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연일 빚 독촉이 이어졌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였다.

"신용회복이 막 끝난 터라 반신반의하며 대출을 신청했는데 서류심사와 상담을 마친 뒤 7백만원을 빌려줬어요. 누군가 살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말할 거예요. 기댈 데라곤 없는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안겨준 근로복지공단이라고요."

박 씨 같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희망드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대상을 가리는 기준이 엄격하다. 이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급여가 1백7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리 3퍼센트,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장례비, 혼례비, 의료비를 최고 7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는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노부모를 모시는 근로자에게는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의 요양비를 3백만원까지 같은 상환조건으로 빌려준다.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만 빼고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융자가 가능해 소득이 적은 저신용 근로자는 장기 저리의 대부를 연 1퍼센트의 신용보증료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해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2백87억6천4백만원이며 7월 말 현재까지 2천4백17명이 1백48억7천9백만원을 빌려갔다.

임금체불 근로자 '희망드림 근로자임금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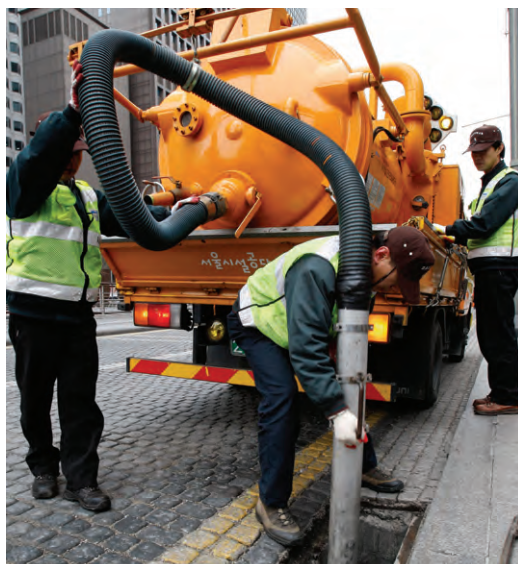
직장생활 8년차에 두 아이의 아버지인 윤재동(가명 · 인천시 남구) 씨.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자동자수기 분야 세계시장 1위의 건실한 중견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온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사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 달치 월급이 밀리자 생계를 해결하려 은행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은행에서조차 대출을 꺼렸다.

절망감 속에서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던 그는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자임금 대부' 사업의 도움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

희망드림 근로자임금 대부는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융자 한도는 7백만원. 융자 조건은 연리 3퍼센트,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올해 예산은 2백억원이며 7월 말 현재까지 3천5백85명의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1백73억8백만원이 지급됐다.

2005년 5월 산업재해로 남편을 여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최은조(가명) 씨는 최근 자녀의 결혼으로 목돈이 필요했다. 유족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던 최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융자를 신청해 혼례비 7백만원을 빌렸다.

동아DB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다양한 대부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 청계천로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최 씨는 "딱히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어 막막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빌린 돈으로 결혼식을 무난히 치를 수 있었다"며 흡족해했다.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산재보험법에 근거한 사망 근로자의 유족(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1~9급의 장애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사유에 따라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을 '연리 3퍼센트,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7백만원까지, 나머지 자금은 1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산재근로자 · 유족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가 장기 직업훈련에 전념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도 펼치고 있다.

융자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연소득 2천4백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로, 남은 훈련 기간 범위 내에서 최고 6백만원까지 빌려준다. 융자 조건도 연리 1.0퍼센트,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파격적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1588-0075 www.workdream.net

신용 9등급 이하 추락… 이자·원금 압박…

삶의 희망 잃었을 땐 '서민금융119'

정말 119를 찾는 것보다 더 급할지도 모른다. 돈의 압박에 삶의 희망을 잃는 건 저신용, 저소득 계층에겐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대출과 기존 채무변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에겐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은행창구보다는 내 처지를 제대로 알고 도와주는 119가 절실하다.

서울의 한 컴퓨터 도매점 판매원 김영욱(가명·33) 씨. 얼마 전만 해도 그는 매월 26일이 악몽 같았다. 전날인 25일은 월급날이라 의기양양할 것 같지만 아니다. 그에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날이다. 휴대전화도 아예 24시간 전원을 꺼놓는다.

그가 이렇게 된 건 빚 때문이다. 지난해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암수술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적잖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꼬리를 물고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연봉 2천2백만원 조건으로 은행 3곳에서 1천7백만원을 대출받았다. 3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9~11퍼센트 이자가 붙어 매달 65만원가량이 급여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이때는 크게 어려울 게 없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1백80만원가량의 월급으로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벅찼다.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기존 대출이 많아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은행 홍보 전단지를 보고 1천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금융소외계층에 눈높이 금융 상담·대출 안내

일단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와 각종 생활비를 해결했다. 대신 한 달 이자가 8만~9만원 추가로 들

조영철 기자

한국이지론 직원이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저신용자와 전화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게 됐다.

급한 불은 껐지만 월급에서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 대출이자를 빼고 돈을 남겨 현상유지를 하기란 쉽지 않았다. 사정이 어렵다고 친구나 선배들과의 모임, 각종 경조사를 무조건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데다 보험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한 달에 1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종합생명보험도 들어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급기야 3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를 대고 은행 빚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때부터 은행에서 신용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제2금융권인 캐피탈도 마찬가지. 결국 2개의 대부업체에서 연 49.9퍼센트의 최고 이자율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 김 씨의 신용상태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신용조회를 받고 연체기록도 남아 있어 신용등급은 9등급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에서 김 씨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후 그는 매달 26일 대출금 결제일이면 '그로기' 상태가 되기 일쑤다. 5분마다 걸려오는 대부업체 직원의 '깐깐한' 대금 납입 독촉 전화와 문자메시지의 후유증에 잠도 못 이룬다.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하면서 그야말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김 씨는 다행히 얼마 전 한 줄기 빛을 찾았다.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119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참고 참았던 어려움을 해소했다. 또한 이곳에서 맞춤대출 안내 서비스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연 10퍼센트대 이자대출로 전환하고 다시 삶의 안정을 찾았다.

한국이지론 1만9천여 명에게 9백69억원 대출 중개

이처럼 서민금융119 서비스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눈높이 금융 상담과 대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대출 서비스는 개인 신용도와 처지에 맞는 맞춤형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이 출자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이 운영 중인 대출 안내 서비스는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상품 중에서 고객 사정에 가장 적합한 대출을 추천해준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 신용정보를 통한 본인조회 방식으로 대출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신용조회 기록도 전혀 남지 않는다.

한국이지론은 2005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 5월까지 1만9천7백19명에게 9백69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 대출 수혜자 중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비율이 75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만큼 저신용자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금리가 낮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도 200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천8백71명에게 93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

이에 한국이지론은 지난 5월 26일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새희망네트워크'를 통해 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의 채무조정·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민금융119 서비스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눈높이 금융 상담과 대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이지론이 운영 중인 대출 서비스는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상품 중에서 고객 사정에 적합한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저신용 서민 누구라도 자신의 사정에 맞는 맞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양일남 서민금융총괄팀장은 "맞춤대출 안내 서비스가 서민들에게 유용한 수단이 됨에 따라 제휴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대출 상품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13개 은행을 포함한 4백85개 금융회사의 1천2백78개 맞춤대출 상품이 한국이지론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금융소외계층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12월 인터넷상에서 새희망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과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 창업, 복지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한국이지론의 맞춤대출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맞는 신용회복 제도도 찾을 수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서민금융119 서비스 www.s119.fss.or.kr
한국이지론 www.egloan.co.kr
새희망네트워크 www.hopenet.or.kr

신용불량은 양심불량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대상자 채무액 감면 등 '구원 손길'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못 갚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서민들에게 '천우신조'의 손길을 내민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막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대상자를 선정해 채무액을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늘려줄 뿐 아니라 긴급자금 대출, 신용관리 교육, 취업 알선도 해준다.

#1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니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카드 빚도 사채만큼 무섭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고요."

'신용불량'을 남의 일로만 여겼던 윤모(41) 씨.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그에게 시련이 닥쳤다. 2년간 병원비를 대느라 신용카드 5개를 돌려막기 하며 1천2백만원을 빚졌다. 5년 전에는 결국 대출금 이자까지 합쳐 1천5백만원을 갚지 못해 말로만 듣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그에게 회생의 손길을 내민 곳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덕분에 원금은 8백40만여 원으로 감액되고, 이자는 전액 감면됐다. 상환 기간도 8년으로 늦춰져 매달 8만7천여 원씩 갚으면 된다. 가사 도우미를 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그는 2년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갚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재된 '신용회복 지원 중'이란 딱지를 떼게 됐다.

#2 경기 안양시에서 노점상을 하는 신모(35) 씨는 지난봄 '가뭄에 단비' 같은 3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신 씨의 딱한 사연을 듣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긴급생활자금을 수혈해준 것이다.

신 씨는 5년 전 친구의 사채 8백80여 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출로 대신 갚았다가 연체하는 바람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거쳐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대출 원금을 1백만원 감면받은 덕분에 액세서리 노점상을 하며 5년째 매달 꼬박꼬박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사 밑천인 손수레와 물품을 함께 도난당하고 말았다. 밑천이 없으면 다시 연체자가 될 뻔했던 그에게 신용회복위원회는 긴급생활자금 3백만원을 연리 4퍼센트의 저금리로 대출해줬다. 새 손수레를 구입한 후 장사가 잘되어 신 씨는 매달 원리금을 갚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례들이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재조정 ▲소액대출 ▲신용관리 교육 ▲취업 지원을 해준다.

지난해 11월 LH공사는 간부 직원의 임금을 반납해 32억원을 '소액서민금융 지원금'으로 기부했다. 이지송 LH공사 사장(왼쪽)과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의 협약식 장면.

채무재조정은 과중 채무자에게 원리금 감면,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 상환 유예 등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1건 50만원 이상 연체해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총액이 5억원 이하(5억원 초과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고,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연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프리워크아웃 대상, 연체 3개월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연체이자는 전액, 약정이자는 30퍼센트 감면받는다. 상환 기간의 경우 무담보채권은 10년, 담보채권은 20년 분할로 늘려준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금도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는다. 원금은 8년 분할로 늘려 갚을 수 있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 독촉이 중단된다. 약 2개월 후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금융

조영철 기자

8월 17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 명동지부 교육장에서
전문 강사가 신용회복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채무 불이행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급여 압류도 해제된다. 그 후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고 기록되는데, 이 기록도 원리금을 24개월 이상 상환하면 삭제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지원은 채무재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사람이 급하게 생활안정자금, 병원비, 학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힘이 돼주는 제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백만원이며, 영세 사업자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다.

개인워크아웃일 경우 이자 전액 · 원금 절반까지 감면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기부금과 지원금으로 긴급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2006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2만8천1백명에게 긴급자금 8백52억원을 수혈해줬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중호 홍보팀장은 "채무재조정을 받은 신용회복 확정자 중 약 30퍼센트가 중도 탈락한다. 반면 소액금융을 지원받은 신용회복 확정자의 경우 중도 탈락률이 0.5퍼센트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며 "소액금융 지원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소액금융 지원금의 상환율은 97퍼센트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에게 채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신용관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소득이 없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해 취업도 알선한다.

사업 실패로 6천8백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김모(45) 씨는 채무재조정을 받고 직장까지 소개받았다. 그는 "신용불량 기록 때문인지 취직이 되지 않아 장기 실직상태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자리를 소개해준 덕분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되고, 살아갈 용기도 얻었다"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 ☎ 1600-5500 www.ccrs.or.kr

막다른 길 '불법 사금융' 조심 또 조심

과도한 이자·수수료·사기 등에 대처하는 방법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몰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50퍼센트나 증가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과도한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요구, 과장광고, 사기행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1 서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에게서 6백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60만원을 제한 5백40만원을 받았다. 대부업자는 A씨가 다니는 회사로 수차례 채권추심(채권자에게서 채무자의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 전화를 해 직장생활을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2 자영업자 B씨는 지난해 3월 카드빚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일숫돈 3백만원을 빌렸다. 연이율 1백96퍼센트에 달하는 초고금리였지만 자신의 백내장 수술비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2백80만원을 갚았지만 상환 일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일수업자에게서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을 받기도 했다.

A씨와 B씨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사금융시장에 발을 들였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대출이자가 연 3천4백76퍼센트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사례 상담 건수는 2006년 3천66건에서 2007년 3천4백21건, 2008년 4천75건으로 매년 10~20퍼센트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6천1백14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에 50퍼센트가 증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9천7백66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사례의 93퍼센트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지인, 명함(전단지) 광고, 휴대전화, 신문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는 연 1백 퍼센트 이상이 전체의 81퍼센트에 달했으며 이 중 연이율이 1천 퍼센트를 넘는 사례도 10퍼센트나 됐다.

또한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15.3퍼센트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 사례는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이 52.5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30.8퍼센트),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13.9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저신용자는 정부 지원 생계형 대출제도 알아봐야"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며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도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이자율 준수 여부와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110콜센터에 전화해 신고와 구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110콜센터에서는 필요시 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 있다. 다음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 해법이다.

Q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높은 금리 때문에 힘이 듭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환승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이나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제도를 통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Q 채무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액을 갚기 힘들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채무조정을 문의하거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휴대전화로 대부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믿고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A 먼저 해당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한 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날아오면 해당 번호를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돈을 빌리려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물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대출을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지급했습니다. 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출 희망자에게서 대출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불법대출중개수수

불법 사채업자 구별 요령

대부업체 10가지 행위를 살펴라

대출받고자 하는 대부업체가 다음에 열거한 10가지 행위를 할 경우 불법 사채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❶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님에도 등록 대부업체라고 사칭한다. 등록 여부는 대부업체 영업소가 자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❷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인 연 49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
❸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❹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❺ 대출 상담 시 사무실 주소나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❻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광고를 한다.
❼ 이자율 산정 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한다.
❽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❾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❿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금융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료 피해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화 금융사기(메신저 피싱)를 당해 사기범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지급정지 요청서 및 피해신고 접수증(경찰서 발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메신저 피싱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후 본인 명의 금융거래 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Q 대부업체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가 대부업체에 아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자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이자의 상당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을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대부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내용은 휴대전화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를 만날 때는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과 경찰 고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한국이지론 ☎ 02-3771-1119, **신용회복기금** ☎ 1577-9449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1288
불법스팸대응센터 ☎ 118 www.spamcop.or.kr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 www.fss.or.kr/kr/mw/sin/lawlessloan_e.jsp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 02-3145-8566~8

'짝퉁' 햇살론 · 희망홀씨에 속지 마세요

'햇살론', '희망홀씨' 같은 서민 전용 대출 상품명을 도용해 고금리를 챙기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을 통해 연 10퍼센트대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희망홀씨'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 고객을 속인 업체 20여 곳을 적발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희망홀씨 대출, 홀씨대출 같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실제로는 4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6일 대출 업무를 개시한 햇살론 역시 고금리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웹사이트에서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상호로 호객행위를 벌이던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현금카드를 회사로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자신들의 돈을 입출금해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금융협회 등을 통해 이들 업체에 해당 문구를 삭제해줄 것을 주문하고 대부업체 상호 등록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햇살론과 희망홀씨 등 상품명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이르면 올해 말 이들 상품명의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국악·포도·와인과 함께하는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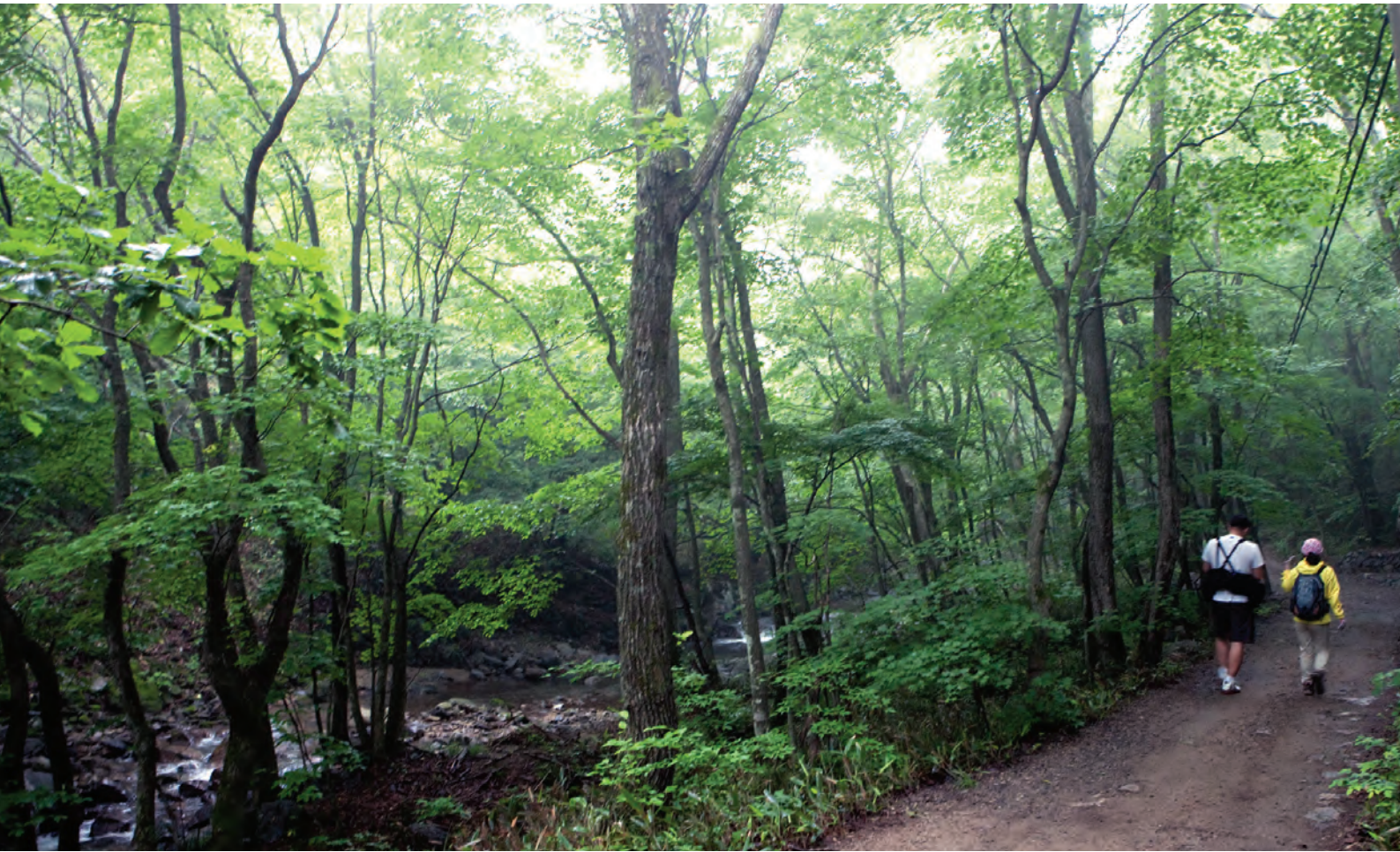
마흔세번째 이야기 난계박연의 꿈

제43회 영동난계국악축제

The 43rd Yeongdong Nan-Gye Korean Traditional Music Festival

2010 9.3 ▶ 9.7 충북 영동군

www.nanmf.org

주최/주관 영동군 YEONGDONG-GUN (사)난계기념사업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MUJU COUNTY 무주군 금산군 GEUMSAN 푸른활력 Osan-si 오산시 용산구 서대문구 강남구 GANG NAM GU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서울 코엑스에서 8월 28일까지 열리는 세계산림과학대회는 대한민국의 산림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지구촌 최대 녹색 물결이 흐른다

세계 최고의 산림 분야 학술행사 '세계산림과학대회' 개막

서울에 전 세계의 나무 박사들이 총집결한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산림과학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2005년 호주 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1백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산림 분야 학술축제다.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국가브랜드와 산림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려 국가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국의 산림은 한때 황폐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녹화에 성공했고, 현재도 온 나라에 녹색의 물결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 관리에 대한 우리의 우수한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고, 아울러 세계적인 산림 분야 석학들의 산림 보존 해법을 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산림 분야 학술행사가 열리고 있다.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 서울축제)가 그것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백10개국 3천5백여 명의 산림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사회와 환경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한 산림의 역할'과 관련한 2천1백50편의 논문이 제출돼 성황을 이뤘다.

특히 산림, 환경, 경제 분야의 국내외 석학 5명이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을 세계인에게 제시했다.

대회 첫날인 23일 고은 시인은 '숲은 짧고 사막은 영원하

다' 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산림 사랑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호소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노어 오스크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27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산림을 보존하는 최고의 해법으로 지구촌 공동체의 자율 협력, 지역별 자치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 밖에도 열대림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피터 쇼 애슈턴 미국 하버드대 명예교수와 프란시스 제이 세이모어 세계임업연구센터 원장은 산림과 기후변화의 관계 및 관리 기술 발전상에 대해 소개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하는 산림의 중요성 알릴 계기"

또한 산림과 환경 분야 선진국 과학자들의 논문들도 발표된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권태성 박사 연구팀은 한반도의 나비류 2백65종과 한반도 기후, 산림 조건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 산림에 서식하는 개미 17종의 분포 결정요인이 기온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대관령 특수조림지, 국립수목원 등을 방문해 세계 최단기 녹화 성공 신화의 현장인 한국 산림의 역사와 산림 보존 이용 전략을 듣고, 숲과 관련된 한국 전통문화도 체험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 코엑스 홀에서 선보이는 세계산림과학전시회에서는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우리 산하' 사진전과 '우리 숲 큰나무' 사진전이 산림 분야 신기술·신제품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인 최완용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구촌 최대 녹색축제로 불리는 이번 대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산림의 중요성이 세계인에게 다시 강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동북아시아 산림 현안인 황사 저감, 산림 황폐지 복구, 사막화 방지 등이 산림 분야 국제 이슈로 부각되고, 산림과학 기술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높아지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세계산림과학대회 홈페이지 www.iufro2010.com/korea

한국 산림은 세대교체 중

2013년까지 13만7천 헥타르 바이오 순환림으로

조영철 기자

4백23만 헥타르, 1백8억 그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국내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산림의 면적과 심은 나무의 수다. 연평균 9만2천 헥타르의 숲을 만들었다.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다. 덕분에 도처에 널렸던 붉은 민둥산은 푸르게 물들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림 사업국으로 꼽히게 됐다.

올해 세계산림과학대회를 서울에서 열게 된 것도 이 같은 성공 사례를 세계가 인정한 덕이다.하지만 숲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무를 열심히 심긴 했지만 좋은 나무를 골라 심지 못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림사업 초기에 심은 아까시, 리기다, 상수리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나무들은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없고 목재로서의 가치도 덜하다. 최완용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체력이 고갈된 환자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듯이 황폐해진 민둥산에는 생존할 수 있는 수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늙은 나무가 너무 많은 점도 문제다. 1960년대부터 조림이 시작된 이후 산림 훼손은 큰 죄악으로 취급됐다. 가꾸는 데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용할 생각을 못해 나무들이 고령화된 것이다.

산림청은 전체 산림 가운데 53퍼센트가 30년 이상 된 나무들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무도 적정 연령 이상 살면 생장을 멈추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해 수종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숲 속 나무들의 세대교체가 시작된 것이다. 1차 대상은 리기다소나무다. 1970~80년대 산사태를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심은 리기다소나무 숲은 전국적으로 44만1천 헥타르에 이른다. 척박한 땅에서 잘 견디지만 경제성은 별로 없다.

산림청은 2013년까지 13만7천 헥타르의 리기다소나무를 백합나무나 리기테다 같은 바이오 순환림으로 바꾸기로 했다. 리기다소나무는 1헥타르의 숲에서 연간 5세제곱미터의 생장을 한다. 같은 면적에서 12세제곱미터가 자라는 백합나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장이 빠르다는 것은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탄소를 그만큼 많이 흡수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수종 교체를 통해 탄소 흡수력이 증가된 점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면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시 근교의 산은 경관림과 도시림으로 교체된다. 도시인들이 등산이나 휴양을 위해 찾아가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벚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등이 대표적인 경관림으로 꼽힌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미 2000년대 들어 활엽수 비율이 침엽수를 추월하는 등 수종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식생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 · 권호(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Man〉

'맨' 앞에서 해피 바이러스 전파

여대생 자원봉사 90개 팀 선발… 여성가족부 지원 활발

경력을 쌓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봉사에 힘을 쏟는 여대생들이 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살려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아이들,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돕는 이들의 활동을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다.

봉사활동 점수가 대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졸업 요건, 취업 등에서 봉사 경력은 필수다. 하지만 이같이 경력을 쌓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을 위한 봉사에 뛰어드는 여대생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직접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아이들, 북한이탈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성균관대 동아리 '푸른 사과' 소속 여대생 15명은 일주일에 네 번 번갈아가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개인교사가 돼준다. 이들은 2005년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중학교 방과후 활동을 맡으면서 교육봉사를 해왔고, 지금은 종로구의 주민센터 교실을 빌려서 활동하고 있다.

푸른 사과 공부방은 눈에 보이는 봉사 실적보다 인성교육과 함께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여대생 자원봉사 동아리 '사랑단'은 한 달에 두 번 장애인 생활시설 '명주원'(충남 공주시 소재)을 찾아 여성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풍선 아트, 원예, 미술, 음악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푸른 사과 동아리를 맡고 있는 윤수연 씨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습 자체에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 프로그램대로 가르치기보다는 보충수업과 일대일 멘터링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박2일 캠프나 소풍 등을 통해 아이들과 정서를 교감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푸른 사과 공부방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나 소풍 비용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예술 재능 기부로 봉사활동을 하는 여대생들도 있다. 수원여대 동아리 '고운 소리방'은 어린이와 장애아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봉사활동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봉사·과학교실 운영 등 재능 기부

고운 소리방은 20여 년 된 동아리로, 지역활동과 연계된 봉사를 하고 있다.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을 찾아 꾸준히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여대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선발되면서 공연에 필요한 제작비용이나 봉사활동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

고운 소리방의 박세리 씨는 "휴가 기간 며칠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방학 기간 내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화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동아리 '아린 사이'는 과학실험교실을 운영하며 봉사를 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8동 '동근 나라 공부방'에서 매주 화요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실험교실 등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이들이 직접 과학실험을 해보면서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아린 사이의 이선영 회장은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평소 하지 못했던 실험을 해보며 신기해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고운 소리방

수원여대 동아리 '고운 소리방'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 뮤지컬 공연 봉사를 하고 있다.

여대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여대생들이 전공을 살리고 나눔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대생들은 자신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보고 봉사 프로그램을 짜며 능력을 개발한다.

여성가족부의 여대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통해 여대생들의 봉사기획 프로그램을 공모해 90개 팀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여대생들이 전공을 살리고 나눔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우기 위한 것이다.

여대생들은 자신의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보고 봉사 프로그램을 짜며 능력을 개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진정성이다.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동참

성신여대 '호우회'에서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문경진 씨는 "장래 직업이나 경력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봉사정신만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도 동참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동아리 '나누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있고, 서원대의 '녹차천사'는 다문화가정 여성과 북한 이탈여성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국제피플투피플(PIPI)도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어와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지킴이(경남정보대학 '하얀 지팡이'), 홀몸여성노인 정서함양 지원 프로그램(경동대 'M.S.C'), 결식아동 치아건강 지킴이(경인여자대학 '희망의 날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돌보기(계명문화대학 '종이나라'), 맞춤형 홀몸노인 결연 자원봉사(광주여자대학 '실크로드'), 다문화가정 어린이 언어발달 증진 프로그램 (광주여자대학 '소리사랑'),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사회 기반 프로젝트(남서울대 '나누미 두루미'), 고아원생과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도우미(남서울대 '사랑 나누리'), 북한이탈여성 건강교육(충남대 '나이팅게일') 등 많은 여대생 동아리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김은형 사무관은 "앞으로도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대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02-6393-5342 www.kucss.or.kr

‘또박또박 쓴 검찰 고군분투 이야기’

창원지검 검사들, 사건처리 뒷이야기 담은 수필집 펴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엮어 〈熱(열)과 誠(성)을 담아〉라는 책을 펴냈다. 창원지검의 젊은 평검사 32명이 ‘사건 뒷이야기’를 담은 이 책에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이야기, 어린 피의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준 사연 등이 담겨 있다.

최근 창원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검찰 세계와 사건 뒷이야기를 담은 책 〈熱(열)과 誠(성)을 담아〉를 냈다. ‘창원지검 검사들의 고군분투 이야기’라는 부제목을 단 2백45쪽 분량의 이 책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창원지검 평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결과를 담담하게 담은 수필집이다.

글을 쓴 사람은 20~40대 평검사 32명. 책에는 이들이 심혈을 기울여 진실을 파헤친 사례 23건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한테서 감사 인사를 받은 사례 7건,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된 사례 5건,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 3건, 기억에 많이 남는 사례 9건 등 각자 한두 건을 기고해 총 47건을 담았다.

서정화 검사는 지난 3월 인터넷 물품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20)씨에게 온정을 베푼 경우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을 나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

일러스트 · 이우정

며 방황하던 학생 A씨는 재판 당시 작은 체구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서 검사는 재판 후에도 A씨가 자꾸 눈에 밟혀 희망을 줄 수 있는 책 몇 권과 직접 쓴 편지를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

서 검사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좋지 않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하더라도 환경만을 탓하기엔 스무 살이라는 나이가 너무나 눈부시고 희망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 앞으로 언제 어디에 있든 잘 해낼 것이라고 믿겠다"고 편지를 썼다.

'열(熱)과 성(誠)'으로 사건 해결한 후일담 47개

또 A씨에게 한비야의 저서 〈그건 사랑이었네〉를 보내면서 책 내용 중에서 '인생을 축구에 비유하면 스무 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전반전을 반도 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구절을 인용하는 등 희망의 메시지를 편지에 적어 보냈다.

1주일 후 서 검사는 A씨의 답장을 받았다. A씨는 "가족 외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관심을 받게 돼 너무 놀랐고,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썼다. 서 검사는 이 답장을 '믿음과 희망의 부메랑'이란 글에 덧붙이며 "처음 임관했을 때 검사장님에게서 한 사람이라도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검사로서의 큰 보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소년범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썼다.

'50대 노총각의 잘못된 사랑'이란 제목 아래 신현성 검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탐정소설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었다. 당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부단한 노력을 통해 결국 객관적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진실을 밝힌 것이다.

피의자인 50대 초반의 노총각 B씨는 휴대전화 가게에 찾아갔다가 여주인 C씨에게 호감을 갖고 음식도 사주고 휴대전화 가입 건수도 여러 차례 소개해주는 등 친밀하게 지냈다. 하지만 B씨는 C씨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면서 이를 따지기 위해 가게를 찾아갔다. 말다툼을 하던 B씨는 홧김에 아이스바일(빙설 등반 시 경사진 곳을 오를 때 사용하는 등산장비)로 C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B씨는 아이스바일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결백을 거듭 호소했다. 신 검사는 딜레마에 빠졌다.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건의 열쇠는 사건 당시 B씨의 복장이었다. B씨는 범행 당시 등산복 차림에 등산화를 신었다고 진술한 반면, C씨는 B씨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등산 가는 복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러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굽히지 않았다.

〈熱(열)과 誠(성)을 담아〉는 창원지검 평검사 32명이 풀어놓은 47개 사연을 소개한 책이다.

결국 신 검사는 결정적 증거가 될 트레이닝복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B씨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해 문제의 트레이닝복과 슬리퍼를 찾아냈다. 하지만 트레이닝복은 낡을 대로 낡았고, 슬리퍼도 앞쪽이 터져 밖에서 신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신 검사는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씨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상해 부분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성폭행범으로 몰릴 뻔했던 50대 노총각의 사랑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피의자 주장 무시 않고 수사 … 억울한 누명 벗겨"

김지완 검사는 진범을 찾아가는 과정을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살인사건'이란 글로 소개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10월 말 경남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에서 발견된 백골시체 살인사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내용은 피의자 D씨와 E씨가 2008년 3월 16일쯤 신어산에서 피해자 F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씨를 살해하고 흙과 낙엽으로 덮어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자칫 영구미제로 묻힐 뻔했으나 김 검사는 E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D씨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그 후 D씨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D씨에게서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D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검사는 "피의자의 사소한 알리바이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치밀하게 수사함으로써 자칫 중형을 받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의 누명을 벗겼다는 데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 책은 시중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7월 9일 서울 북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이창세 검사장이 사비를 털어 2백 권을 발간해 이임 선물용으로 나눠줬다. 이 검사장은 책머리에서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던 창원지검 검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G 글 · 이동렬(한국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뚱보들’ 홈런 치러 나간다

‘과체중’ 약점 이기고 전성시대 달리는 이대호·최준석

9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세계 야구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세운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야구팬이라면 “저리도 뚱뚱한데 어떻게 허리가 잘 돌아가고 잘 칠까” 하는 의문을 한 번쯤 품어봤을 터. 이대호뿐인가. 요즘 프로야구계에는 이른바 ‘뚱보’들이 의외로 호쾌한 타구를 펑펑 날린다. 야구와 ‘뱃살’의 묘한 상관관계를 들여다봤다.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말고도 배가 불룩하게 나온 야구선수를 보면 “야구는 운동도 아니다”라고 하는 팬들이 적잖다. 씨름, 역도 등 힘을 쓰는 종목의 선수들은 배가 나온 걸 용인받는데, 그라운드에서 뛰는 야구선수들은 뱃살 탓에 심심치 않게 조롱의 대상이 된다. 야구는 던지고 치는 것이 기본이고, 던지고 칠 때 몸의 회전속도가 아주 중요하다. 뛰는 것도 필수다. 뱃살이 두둑해 둔해 보이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런데 올해 프로야구 타격 부문에서는 큼직한 배를 가진, 이른바 ‘술통형’ 몸매의 선수들이 초강세다. 어찌된 일일까. 프로야구 최고의 거구인 이대호는 2006년에 이어 올해 개인 두 번째 트리플크라운(홈런, 타점, 타율 3관왕)을 노리고 있다. 8월 13일엔 9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과거 이대호와 롯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최준석(두산 베어스)도 각종 타격 부문에서 톱 10에 진입해 있다. 이대호는 8월 19일 기준 홈런(39개), 타율(0.360), 타점(114개) 1위다. 최준석은 타율(0.317) 8위, 홈런(17개) 12위, 타점(69개) 10위다.

둘의 정확한 몸무게는 대외비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자료에 따르면 이대호는 1백92센티미터에 1백 킬로그램이고, 최준석은 1백85센티미터에 1백15킬로그램이다. 한 포털사이트 프로필에는 이대호의 몸무게가 1백30킬로그램으로 돼 있다. 한때 그의 몸무게가 1백40킬로그램에 이른다는 말이 있었고, 최준석도 비슷했다.

이대호는 올해 살을 제법 뺀 편이지만, 몇 년 전엔 한눈에 봐도 1백 킬로그램은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다. 국제대회 때 이대호를 본 일본 야구 관계자들이 국내 지인들에게 “저 친구 야구선수 맞나. 어디 스윙이나 제대로 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그러다 일본은 2008 베이징올림픽 때 이대호에게 호되게 당했다.

겉으론 둔해 보이는 이들이 시속 1백50킬로미터의 직구와 0.4초 이내 승부를 벌이는 데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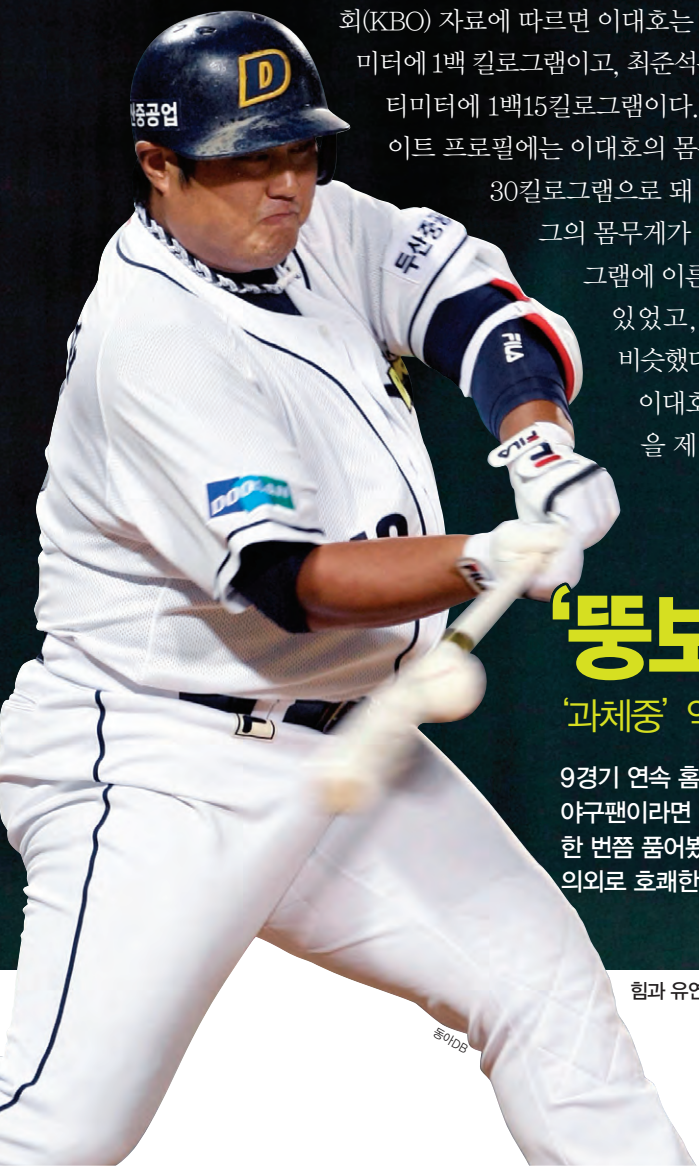
‘큰 몸 버티는 파워 · 힘 통제하는 유연성’ 이상적 공조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면 그 핵심은 유연성이다. KIA 타이거즈 김준재 의무 트레이너는 “큰 몸을 버텨내는 파워, 그 힘을 통제하는 유연성의 이상적인 공조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이대호나 최준석은 거구라 힘이 아주 좋은데, 힘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좋은 스윙을 하고 있다. 좋은 스윙이란 타구에 부드럽게 큰 힘을 실어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이나 발목 등에 하중이 많이 실린다. 작은 동작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간적인 중심 이동이 쉽지 않고, 그러다 자칫 몸을 다치게 된다. 김 트레이너는 “유연성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대호와 최준석은 몸이 부드러워 중심 이동이 자연스러운 편이고, 다치지 않고 꾸준하게 활약한다. 보통 지방이 많은 선수가 근육질의 선수보다 부드러워 덜 다친다”고 말했다.

힘과 유연성을 갖췄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큰 몸을 그런대로 잘 놀린다고 스윙까지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뚱뚱한 선수는 몸의 회전이 늦다. 마운드에서 타석까지는 18.44미터다. 투수의 손을 떠난 직구는 보통 0.4초 이내에 타자에게 도달한다.

힘과 유연성, 자신의 몸에 맞는 스윙법을 두루 갖춘 최준석.

동아DB

그런데 스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대호나 최준석은 자신들의 몸에 맞는 스윙을 할 줄 안다. 왕년에 왼손 거구로 김응룡(현 삼성야구단 사장)과 함께 국가대표 중심 타선을 형성했던 실업야구연맹 박영길 회장은 "나름의 방법이 있다"면서 "몸의 회전이 아주 빠른 선수가 공이 전방 4~5미터 정도에 왔을 때 스윙을 시작한다면, 거구들은 이보다 빨리 전방 5~7미터 정도에서 몸에 시동을 걸면 된다. 타격 때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어쨌든 타이밍만 맞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이대호는 기술적으로 정점에 서 있다"고 했다. "이대호는 전에는 상체의 힘만 이용한 스윙을 했지만 올해는 하체를 먼저 돌린다. 스트라이드(선 자세에서 스윙에 힘을 싣기 위해 한 쪽 다리를 조금 더 벌리는 동작) 이후에 하체와 연결된 허리가 먼저 돌고, 다음에 어깨가 돌아간다. 허리 회전은 빠르고 강하다. 그래서 상체 동작 때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마지막 순간에 타구의 방향과 높낮이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대호는 타구를 정확히 강하게 칠 수 있다. 홈런도 많고 안타도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살은 타격 파워의 원천이며 정신력의 밑천"

최준석의 경우 야구의 특징 덕에 큰 몸에 따른 불이익을 던다. 타자는 스윙 때 전신 근육이 아닌, 부분 근육의 순발력에 의존한다. 그는 상체 위주의 스윙을 한다. 상체의 힘으로 몸을 회전시켜 타이밍을 잡고 공을 때린다. 상체의 힘이 좋아 회전속도가 달리지 않는다. 문제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어깨에 과도하게 힘을 주면 어쩔 수 없이 히팅 포인트가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밝혔다.

둘 다 약점인 과체중을 이겨내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지만, 몸이 무거운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이대호는 28세, 최준석은 27세다. 아직은 젊어 몸을 끌고나갈 수 있는데, 서른이 지나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지면 현재의 몸무게가 부담스럽게 된다. 지금 당장도 좁은 수비 범위가 문제다. 스윙은 괜찮지만, 몸을 온전하게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느리다. 김 트레이너는 "당장은 현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몸무게를 줄여나가야 선수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몸무게는 85킬로그램. 둘은 평균보다 20~30킬로그램 더 나간다. 그러나 개인적으론 현재 가장 날씬한 상태다. 최준석은 최근 몇 년보다 몸무게를 20킬로그램가량 줄여 올 시즌에 나섰다. 이대호도 지난해 말 4주 기초군사훈련 때부터 감량을 시작했다. 2005년 말 통도사에서 몸무게를 1백35킬로그램에서 1백15킬로그램으로 20킬로그램 뺀 뒤 이듬해 트리플크라운을 썼던 기억을 되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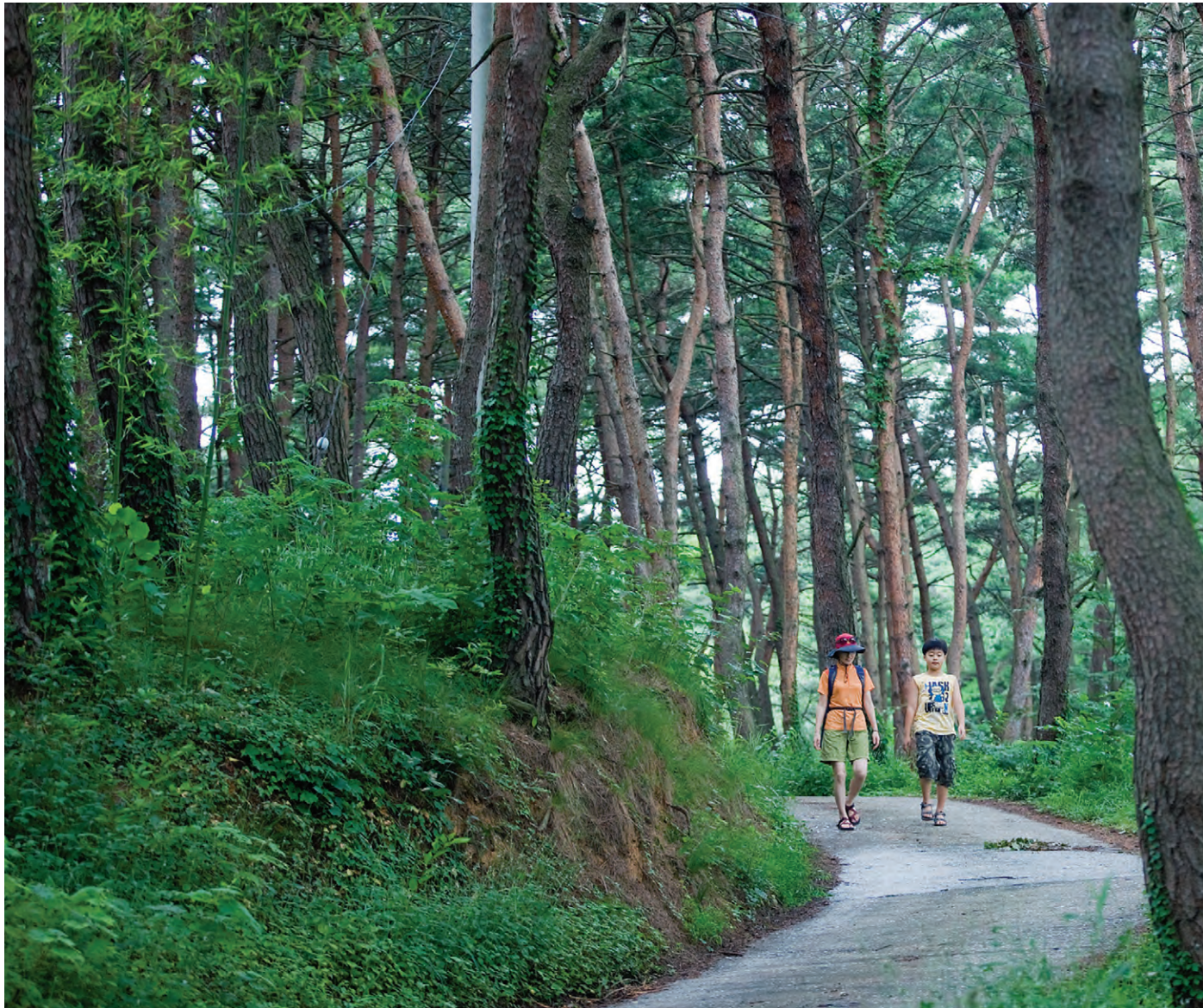
이대호와 최준석은 운동선수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뚱뚱하지만, 야구를 하는 데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남모르게 악전고투하고 있다. 뼈를 깎을 정도로 지독한 '살과의 전쟁'이 오늘의 그들을 있게 했는지도 모른다. 살은 타격 파워의 원천이면서 강한 정신력의 밑천인 것이다. G

글 · 윤승옥(스포츠서울 야구팀 기자)

9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이대호.

오죽헌에서는 여러 명사들의 기문(記文)과 시판(詩板)도 볼 수 있다.

강릉 대관령 너머길

그 옛길 따라 자분자분 걷노라면 고개 너머 솔향이 마중 나오네

대관령(8백32미터)은 강릉의 관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강릉 땅을 드나들려면 대관령 아흔아홉 구비의 구절양장 같은 고갯길을 넘어야 한다. 고갯길의 길이만 해도 13킬로미터에 이른다. 하지만 반듯하고 경사 완만한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 구간을 자동차로 넘을 때에는 고갯길을 지난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속도와 편리함만 강조되는 그 길에서 대관령의 역사적 의의와 오랜 내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 속도와 편리함을 버리고, 일부러 멀고 불편한 대관령 옛길을 찾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대관령 옛길의 운치와 멋에 흠뻑 매료된 이들은 오랫동안 잊혀지거나 사라졌던 길을 되살리고 이어서 '대관령 너머길'을 열었다.

신사임당길을 걷는 도중 만나게 되는 시루봉 솔숲길. '솔향' 강릉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올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문화생태 탐방로 중 하나로 선정한 대관령 너머길은 강릉 바우길의 2, 3, 10, 11구간을 이어놓은 길이다. 소설가 이순원 씨와 산악인 이기호 씨 등이 주축이 돼 개척한 바우길은 모두 11개 구간에 총길이가 무려 1백62.9킬로미터에 이른다. 그중 대관령 너머길에 포함된 4개 구간의 길이는 총 56.6킬로미터다. 최소한 이틀은 걸어야 할 만큼 긴 여정이다. 게다가 구간마다 독특한 매력과 재미가 있어서 어느 한 구간만 정해서 걷기도 쉽지 않다.

예컨대 '대관령 옛길'은 아득한 옛날부터 신사임당, 율곡 이이, 송강 정철, 단원 김홍도 같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서울과 강릉 사이를 오갈 때 지나던 역사의 길이다. 옛길의 풍경과 운치가 가장 잘 살아 있어서 경향 각지에서 온 걷기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구간이기도 하다.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은 아름드리 금강소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는 숲길이다. 옛날부터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이곳 소나무들은 궁궐을 짓는 재목으로 쓰였다고 한다.

'심스테파노길'은 조선 말기의 병인박해 당시 심스테파노라는 천주교 신자가 서울에서 출동한 포졸들에게 잡혀가 순교한 마을을 거쳐 간다.

'신사임당길'은 사임당 신씨가 어린 아들 율곡을 데리고 서울로 갈 때 지났던 길이다. 특히 이 길은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허난설헌 생가 등을 두루 거치는 역사·문화 탐방로다.

옛길의 풍경과 운치 가장 잘 살린 대관령 옛길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지닌 대관령 너머길의 전 구간을 한꺼번에 모두 걸을 필요는 없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한두 구간씩 마음 편히 걷는 게 여행의 즐거움이다.

삼복염천의 무더위 속에서 신사임당길을 걸었다. 대관령 옛길은 이미 서너 차례 걸어봤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은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과 심스테파노길은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걷는 것이 더 좋을 성싶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신사임당길이 선택됐는데, 솔숲 많은 이 길은 의외로 시원했다.

신사임당길이 시작되는 곳은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촌장제가 유지되는 촌장마을이다. 조선 중기부터 4백40년 동안 이어온 대동계가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도 매년 설날 위촌리 전통문화전승관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촌장님에게 합동세배(도배)를 올린다.

촌장마을에서 작은 내를 따라가면 제법 규모가 큰 죽헌저수지의 호반길에 들어선다. 3.5킬로미터가량 이어지는 호반길은 소나무가 울창한 데다 이따금씩 맑은 솔바람이 불어와

홍련과 배롱나무꽃이 곱게 핀 선교장의 여름 풍경.

한여름에도 걷기 좋다. 하지만 호반길이 끝나는 제방에서 오죽헌까지 1.8킬로미터 구간은 하늘이 훤히 열린 들길이다.

오죽헌(033-640-4457)은 조선 중종 31년(1536년)에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다. 율곡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가 친정인 이곳에서 아들을 낳았다. 사임당이 율곡을 낳기 전 용꿈을 꾸었다는 몽룡실(夢龍室)도 여기에 있다. 뒤뜰에는 줄기가 검은 오죽(烏竹)이 많아서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데다 조선 건축양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이라고 해서 보물 제165호로 지정됐다.

오죽헌 주변에는 2007년에 천연기념물 제484호로 지정된 율곡매와 수령 6백 년 된 배롱나무가 서 있다. 둘 다 살아생전의 사임당과 율곡의 모습을 지켜봤을 고목들인데, 한창 절정에 이른 배롱나무꽃은 오죽헌 경내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다.

오죽헌에서 동쪽으로 1.2킬로미터 떨어진 강릉시 운정동에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양반집이자 가장 큰 개인주택으로 평가되는 선교장(중요민속자료 제5호)이 자리 잡고 있다. 선교장의 주인인 이내번은 평야지대가 없는 강릉에서 만석꾼이라 불릴 정도의 대지주였다. 1703년에 선교장을 처음 지은 그는 우연히 이곳에 천하의 명당을 발견한 뒤 이사를 왔다고 한다. 그 이후로 가세가 더욱 번창하면서 사랑채인 열화당, 정자인 활래정 등이 증건됐다.

오죽헌 내 강릉시립박물관 체험실에서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어린이들.

오늘날 줄행랑과 담에 둘러싸인 선교장의 안쪽에는 안채, 사랑채, 동별당, 서별당, 사당 등이 가지런히 들어서 있다. 바깥쪽에는 'ㅁ'자 모양의 방형 연못과 정자까지 갖춰져 있어 조선 상류층 주택의 완벽한 짜임새를 보여준다. 그래서 선교장은 사시사철 언제 찾아가도 기품 있고 운치가 넘친다.

매월당기념관엔 김시습 관련 사료·문집 등 전시

선교장 옆에는 매월당기념관(033-644-4600)이 있다.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저자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이 강릉 김씨 집안 사람이어서 이곳에 기념관을 세웠다고 한다. 아담한 규모의 기념관 내에는 김시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와 문집 등이 전시돼 있어 지나는 길에 잠시 들러볼 만하다.

매월당기념관을 지나온 신사임당길은 잠시 마을길과 들길을 가로질러 시루봉 능선길로 이어진다. 시종 빼곡한 솔숲 사이로 이어지는 시루봉 능선길은 '솔향' 강릉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다. 낮고 완만한 능선길을 자분자분 걷노라면 그윽한 솔향이 온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심신의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주는 듯하다.

시루봉 능선의 솔숲 길은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로 이어진다. 경포대는 웅장한 규모의 누각 자체도 볼거리지만, 무엇보다도 경포호 조망이 일품이다. 일찍이 '제일강산(第一江山)'이라 불렸을 만큼 빼어난 풍광이 사방으로 펼쳐진다.

경포대를 내려선 신사임당길은 다시 경포호의 호반길과 연결된다. 원래 12킬로미터에 이르던 경포호의 둘레는 이제 4.3킬로미터로 크게 줄었다. 그중 1.2킬로미터가량을 거쳐 가는 신사임당길은 교산교와 난설헌교를 건너 초당마을 솔숲으로 들어선다. 솔숲 한복판에는 조선 최고 여류시인인 난설헌 허초희와 당대의 혁명가이자 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 남매의 옛집이 있다.

경상감사를 지낸 허엽의 작은딸로 태어난 난설헌은 어려서부터 예쁘고 총명했던 데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15세 때 혼인한 뒤로 순탄치 않은 삶을 살다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요절했다.

난설헌이 태어나고 허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터에 들어선 이 집은 근래 깔끔하게 단장됐다. 한동안 사람의 온기가 끊겼던 사랑채는 이제 난설헌차방으로 꾸며져 간간이 찾아오는 이들의 쉼터가 됐다. 집 주변에는 허난설헌기념관, 문학공원, 허씨 5대 문장가들의 시비 등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아름드리 솔숲이다. 소나무와 솔숲이 지천인 강릉에서도 초당마을의 이 솔숲은 최고의 마을숲으로 꼽힌다. 숲 바닥에 대자리를 깔아놓고 온종일 뒹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청신한 솔바람과 그윽한 솔향기에 매료된 나그네는 차마 발길을 되돌리지 못한 채 한동안 초당마을 솔숲을 서성거려야 했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코스 정보

대관령 옛길 16.2km(5~6시간)
옛 영동고속도로(상행선) 대관령휴게소 → 선자령 등산로 입구 → 양떼목장 옆길 → 풍해조림지 → 대관령 국사성황당 → 반정 → 주막 → 대관령 자연휴양림 입구 삼거리 → 어흘리 → 보광리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 13km(5~6시간)
보광리 → 보현사 앞 임도 갈림길 → 어명정 → 술잔바위 → 송이 움막 → 임도 삼거리 → 명주군왕릉

심스테파노길 11km(5시간)
명주군왕릉 → 무일동 → 멍에재 → 경암동 골아우(심스테파노마을) → 위촌리 촌장마을 → 촌장마을 전통문화전승관

신사임당길 16.4km(6시간)
촌장마을 전통문화전승관 → 죽헌저수지(지변지) → 오죽헌 → 선교장 → 시루봉 솔숲길→경포대→경포 호반길→허균·허난설헌 생가

*문의 · 바우길 | www.baugil.org **탐사대장** | 010-9244-5995

숙박

선교장(033-646-3270)에서도 숙박을 할 수 있다. 방의 크기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한 칸에 2명씩 총 4명이 묵을 수 있는 2칸짜리 방 하나의 숙박료는 5만원. 경포대 부근의 울창한 솔숲에 둘러싸인 객주휴심(033-642-5075)은 통나무와 황토로 지어진 전통한옥펜션이다. 경포해수욕장 주변에는 현대호텔경포대(033-651-2233), 경포비치르호텔(033-643-6699), MGM호텔(033-644-2559), 경포수모텔(033-644-1239), 경포솔숲으로펜션(033-643-4900), 경포발리펜션(033-644-4439), 씨에스타펜션텔(033-651-4475) 등 다양한 종류의 숙박업소가 몰려 있다.

맛집

선교장 인근 서지마을의 서지초가뜰(033-646-4430)은 창녕 조씨 종가의 전통음식과 옛날 농가음식을 재현한 한정식을 내놓는다. 선교장 내의 연(033-648-5307)도 가승(家乘)음식을 한정식으로 차려낸다. 허난설헌 생가가 자리한 초당두부마을에는 초당할머니순두부(033-652-2058), 토담순두부(033-652-0336), 그옛날초당순두부(033-653-1547) 등과 같이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해 담백하고 고소한 초당두부를 만드는 두부 전문점들이 20곳 넘게 성업 중이다. 위촌리 촌장마을에 위치한 위촌리전통한우(033-643-6928)에서는 한우 암소의 여러 부위를 비교적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가는 길

승용차 승용차 동해고속도로 강릉나들목 → 강릉요금소 통과하자마자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방면으로 우회전 → 도로공사 강릉지사 방면으로 좌회전 → 위촌마을 전통문화전승관(대관령 너머길 4구간의 시점 · 강릉요금소에서 1.37킬로미터 거리)

대중교통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과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강릉행 고속버스가 40~50분 간격으로 출발. 강릉시외고속터미널까지는 약 2시간 20분 소요. 강릉시외고속터미널 앞에서 대관령 너머길 4코스의 시점인 위촌리로 가려면 512, 521-1번 시내버스 이용.

온라인 속에도 '한국의 맛' 있었네

한식 블로그 운영하는 외국인 파워블로거 3인

한국인보다 더 한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외국인들이 있다. 한식 블로그를 운영하는 미국인 조 맥퍼슨(36), 제니퍼 플린(30), 대니얼 그레이(31) 씨다. 이들은 한번 맛본 한식의 맛을 잊을 수 없어 아예 한국에서 거주하며 외국인들을 위한 한식 알리미를 자처하고 있다.

하루 평균 수천명의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이들의 블로그는 이름부터 독특하다. 그레이 씨의 '서울잇츠(seouleats. com)', 플린 씨의 '팻맨서울(fatmanseoul.com)', 맥퍼슨 씨의 '젠김치(zenkimchi.com)'처럼 '서울'과 '김치'를 키워드 삼아 외국인들에게 '한식'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 중 먼저 개설한 블로그는 2004년쯤 자리 잡은 맥퍼슨 씨의 젠김치다. 하루 평균 6백~1천명의 방문자가 찾는 그의 블로그는 온갖 한식 정보들로 가득하다.

대학 시절 한국사 강의를 들었던 것이 인연이 돼 한국을 찾은 맥퍼슨 씨는 서양인 입맛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미개척지인 '한식'에 푹 빠졌다. 결국 10여 년째 한국에 자리 잡게 됐고, 지금은 주한 외국인을 위한 영문 잡지 〈10 매거진〉에서 음식 에디터로 일한다.

플린 씨의 블로그는 셋 중 유일하게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해 글을 올린다.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과도 소통하고, 한국어도 알리기 위해서다.

"한식은 한국 문화와 삶을 온전히 담은 음식"

인류학을 전공한 그의 블로그는 보통 음식 블로그와 다르다. 단순한 조리법이나 레스토랑 탐방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한식' 코너 등에서 한식의 사회적 의미나 역사적 배경까지 다룬다. 1999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던 그는 몇 차례 한국을 오가다 지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수년째 한식을 맛본 자신의 경험을 전하면서 "한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입맛에 맞는 현지화된 한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레이 씨가 한식 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오이냉채' 때문이다. 다섯 살 때 미국 가정에 입양된 그는 한국인 친어머니가 해줬던 오이냉채의 시큼하고 시원한 맛을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와 고향의 맛을 찾기 위해 2005년 한국에 온 그는 한식에 매료됐고 2년 뒤 블로그를 개설했다.

이태원, 강남 등 지역별 서울 맛집의 대표 메뉴와 인테리어, 연락처 등이 잘 정리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있다.

그의 한식 사랑은 직업 결정에도 한몫했다. 음식 관련 회사에서 한식관광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주한 외국인 등에게 한식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그레이 씨는 "한식은 한국 문화와 삶을 온전히 담은 음식"이라고 말했다.

"사계절의 분위기와 문화를 담은 한식이 더 많은 세계인의 입맛을 다시게 하기 위해 블로그뿐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홍보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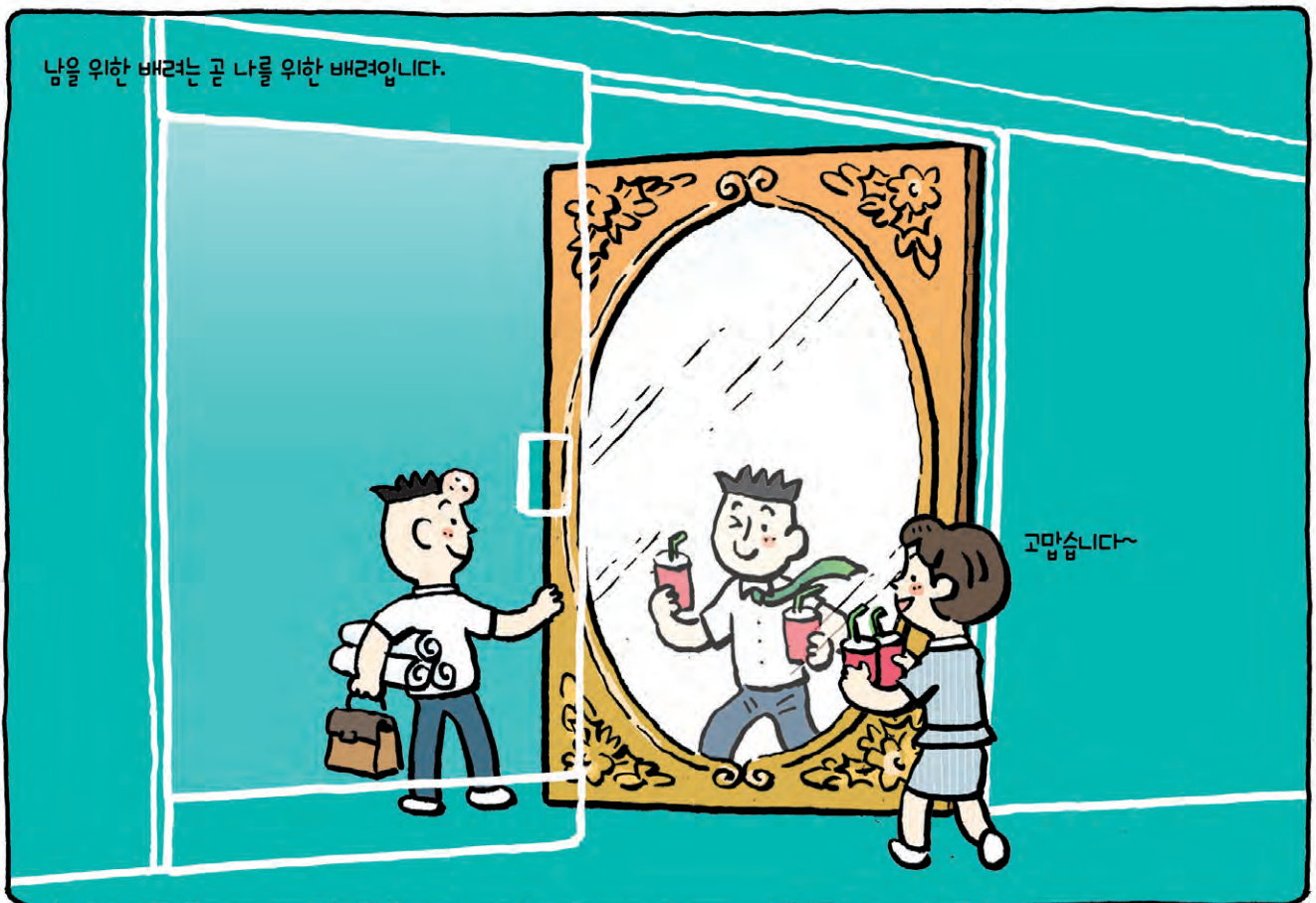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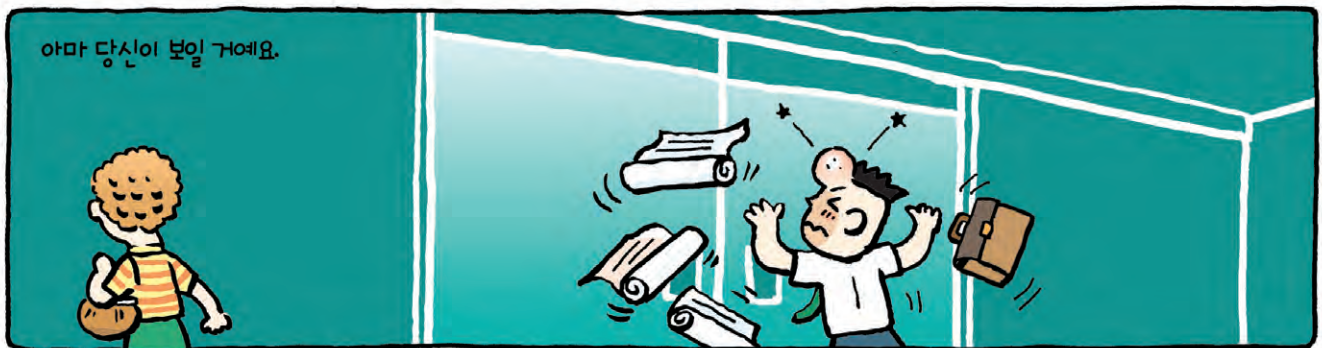
글 · 김민지 기자

1. 그레이 씨의 '서울잇츠(seouleats.com)'
2. 플린 씨의 '팻맨서울(fatmanseoul.com)'
3. 맥퍼슨 씨의 '젠김치(zenkimchi.com)'

배려의 거울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남을 위한 배려는 곧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고맙습니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세요. 나는 당신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오케이"로 답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여옥 의원이 삶을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그의 삶의 방식은 독서 습관에서 비롯됐다. 그는 책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다.

평소 5, 6권의 책을 한꺼번에 다독하는 그는 식탁부터 책상, 침대 옆까지 집 안 구석구석에 책을 둔다. 눈에 띄어야 그만큼 읽는다는 생각에서다. 특정 장르만 고집하지 않고 소설에서 정책 분야까지 다양한 책을 읽는다. 자신의 홈페이지(oktalktalk.com)에 〈Check! 책 Check!〉라는 코너를 마련해둘 정도로 좋은 책이 생기면 알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런 그가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쓴 〈매혹〉(2010)이다. 최 기자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과 '최보식 칼럼'으로 필명을 날렸다. 그런 그가 지난 5월 홀연히 회사를 떠나 강원도 남애항 인근에서 석 달간 칩거한 끝에 첫 장편소설 〈매혹〉을 써냈다.

전 의원은 "예전부터 최 기자의 인터뷰 기사를 좋아해 늘 챙겨 보던 애독자였다"면서 "최근 소설을 냈다고 하기에 챙겨 읽다가 그의 깔끔하고 세련된 문장에 '매혹'돼버렸다"고 말했다.

소설의 배경은 지금부터 2백30여 년 전 조선 정조 때다. 당시는 주자학의 시대였다. 하지만 서양으로부터 온 서학(西學·천주교)이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서학과 주자학의 대립이 극명해졌기 때문이다. 서학을 받아들였던 이벽(1754~1786)과 정약용(1762~1836)은 주자

〈매혹〉 최보식 지음/ 휴먼앤북스 펴냄 · 1만2천원

학파에게 집요한 공격을 받는다. 서로 살기 위해 동지들을 고발하고 탄핵하는 과정이 여실히 그려진다.

"이벽과 정약용은 서학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공부했던 친구예요. 하지만 이벽은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고 정약용은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보통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두 인물을 보면서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정치 현장을 되돌아봤어요. '이벽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약용이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요. 결국 구차스럽고 힘들어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어요.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품격이자 의무이기 때문이죠."

전 의원은 최 기자의 소설을 읽으면서 잠시 잊고 지냈던 작가로서의 욕망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소설을 읽으면 글쓰기 욕망이 되살아나요. 대신 지금 제 몫은 이 책의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일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치열한 삶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해요. 인내하고 끝까지 절제하는 삶을 통해 인생이 '종신형'이란 형벌이 아니라 다시 들을 수 없는 값진 수업의 '수업료'라고 여기길 바랍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전여옥 의원이 추천하는 소설 〈매혹〉

치열하고 힘든 삶은 인생의 값진 '수업료'

잊혀진 자연의 소리

글과 그림 · 최영순

집이 거대하여 천 칸 넓이라 하더라도 잠잘 때에는 여덟 자 길이면 족하고,
논밭이 만경창파같이 넓어 곡식이 많더라도 하루에 두 되 쌀이면 족하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생활의 괴로움이 절반은 줄어든다.
– <채근담>

연기 달인 신구·손숙 39년 만에 재회 무대

연극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국내 연극계의 거목인 신구(74)와 손숙(66)이 39년 만에 연극무대에서 다시 만난다. 8월 20일부터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가 그 무대다. 두 배우가 한 무대에 서는 것은 1971년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달집〉 이후 처음이다.

손숙은 이번 작품에 임하는 소감을 묻자 "신구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작품일지도 모르는 만큼 이 시간이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밝혔다. 신구는 작품에 대해 "정치, 문화, 종교 등 다양한 것이 담겨 있어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극은 까칠하다 못해 괴팍해 보이기까지 하는 노부인 데이지와 성실한 흑인 운전기사 호크가 긴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진솔한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손숙과 신구는 각기 데이지와 호크 역을 맡아 20대 못지않은 열정적인 연기 투혼을 발휘한다.

1987년 미국 뉴욕에서 초연한 이 작품의 희곡(알프레

드 유리 작)은 1988년에 퓰리처상을 받았다. 1990년에는 할리우드 배우 모건 프리먼과 제시카 댄디 주연의 영화로 제작돼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기도 했다.

국내 공연은 이번이 처음. 뮤지컬 〈명성황후〉의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널 대표가 연출을, 중견 무대 디자이너 박동우가 무대 구성을 맡았다. 윤 대표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잔잔한 감동을 일으킨다면, 무대 중심에 자리한 움직이는 자동차 모형, 막이 바뀔 때마다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피아노와 기타 연주는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9월 12일까지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토·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장애인 50퍼센트 할인(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전화 예매 시 적용) **문의** 1644-2003 www.mdtheater.or.kr

● 제43회 영동 난계국악축제

한국 전통음악을 집대성한 난계 박연 선생의 뜻을 계승하는 한편 충북 영동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 아프리카 공연 팀의 퍼레이드와 난계국악단의 신명나는 국악 공연, 퓨전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국내 유일의 국악축제인 이 행사는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포도 홍보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2010 영동포도축제'와 함께 열린다. 영동포도축제는 용두공원 옆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일시 9월 3~7일 **장소** 충북 영동군 용두공원 등 **관람료** 무료

문의 043-742-2655 www.nanmf.org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당신이 모은 저축액에 최대 7배(4인가족기준)를 더해 목돈을 만들어 드립니다